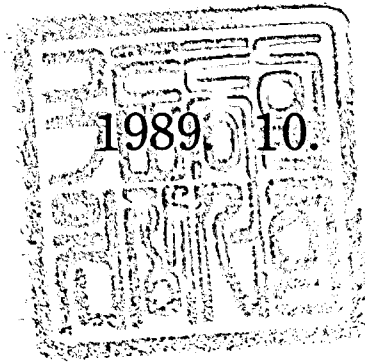


南北高位當局者會談

第3次 豫備會談 會議錄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目 次〉

1. 一般事項 3

2. 會議錄 7

附錄：代表團 記者會見 117

1. 一般事項

가. 日 時 : 1989. 10. 12 (金) 10:00 ~ 13:07

나. 場 所 :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측	北 측
<p style="text-align: center;">〈首席代表〉</p> <p>宋 漢 虎 (國土統一院 次官)</p>	<p style="text-align: center;">〈團 長〉</p> <p>백 남 준 (정무원 참사)</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金 三 勳 (外務部 情報文化局長)</p> <p>朴 鍾 權 (國防部 合同參謀本部 局長)</p> <p>廉 弘 喆 (大統領 秘書室 政務秘書官)</p> <p>金 保 鉉 (國務總理室 行政調整室 審議官)</p>	<p style="text-align: center;">〈代 表〉</p> <p>유 성 철 (정무원 실장)</p> <p>최 우 진 (외교부 국장)</p> <p>최 성 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부장)</p> <p>김 영 철 (인민무력부 부국장)</p>

會 議 錄



2. 會議錄

〈雙方代表 入場 및 人事交換〉

南(宋漢虎) : 안녕하세요?

北(백남준) : 안녕하세요?

(記者들 寫眞撮影)

北(백남준) : 그래, 어떻게 이렇게 계속 서있겠어요? (一同웃음)

南(宋漢虎) : 그거 奉仕를 해 주어야지요. (一同웃음)

北(백남준) : 奉仕?

南(宋漢虎) : 예, 奉仕해 주어야지요.

北(백남준) : 그거 그렇게 奉仕해요? 이렇게 하고 奉仕를 해줘야지.

南(宋漢虎) : 자, 그럼 우리 始作할까요?

(記者들 要請으로 寫眞 再撮影)

南(宋漢虎) : 자, 이제 됐지요?

또 한번? 그러면 首席代表끼리만 할게요. (一同웃음)

자 그럼 그쪽에도 한번 하겠어요? 이제 됐지요? 자 앉읍시다.

北(백남준) : 허허허…….

南(宋漢虎) : 자, 우리 미리 通告해드린 바와같이 우리 代表團中 2名이 交替되었어요.

北(백남준) : 아, 예, 예.

南(宋漢虎) : 그래서 우선 紹介를 해드리겠습니다.

北(백남준) : 예.

南(宋漢虎) : 國防部에서 나온 朴鍾權代表.

北(백남준) : 예.

南(朴鍾權) : 朴鍾權입니다.

南(宋漢虎) : 그 다음에 靑瓦臺에서 나온 廉弘喆代表.

南(廉弘喆) : 잘 좀 부탁드립니다.

北(백남준) : 예, 그뉘 先生님들 이렇게 새롭게, 代表先生들 만나게 되니까 반갑구만요.

그 또 한편 그前에 龍先生이나 姜先生이 그래도 뉘 두차례 마주 앉아서 무릎을 맞대고 統一問題 討論하던건데 그 印象이 깊은데, 한편 또 조금 섭섭한 面도 있습니다.

南(宋漢虎) : 이 다음에 또 서로 만날 機會가 있겠지요.

北(백남준) : 아직까지, 그럼 그럼 統一된 다음에야 뉘 만나겠지 뉘 …….

南(宋漢虎) : 아, 그 前에 만나야 되겠쵸.

北(백남준) : 또 새롭게, 새로운 代表들이 오셔서 또 이제 무릎을 맞대고서 討論하게 됐는데 …….

南(宋漢虎) : 그래 白先生! 우리가 지난 3月初에 만났으니까 오늘이 아마 7個月하고 꼭 열흘정도 된것 같아요.

철(季節)도 이제 봄, 여름, 가을 한 서너차례 바뀌고, 또 오늘 이제 板門店으로 올때 보니까 주변의 논에서 다들 벼베기도 하고 秋收가 한창이던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보다 …….

北(백남준) : 그제 뉘, 우리가 7個月이 넘지요?

南(宋漢虎) : 예.

北(백남준) : 그제 7年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어저께 陸路를 내려오면서 보니까, 지금 가을걷이가 마
감단계입니다.

南(宋漢虎) : 아, 그래요 .

北(백남준) : 그래 우리가 아무래도 좀 조금 그쪽보다 빠르니까.

南(宋漢虎) : 아, 예.

北(백남준) : 그래 今年度에 우리 農事가 잘 되었어요.

南(宋漢虎) : 아, 그래 그것 참 多幸입니다.

北(백남준) : 예, 이제 못이 가물었는데. 원래 平年에는 8月末까지 降雨
량이 500 mm 내지 800 mm 정도인데, 그런데 今年에는 500 mm까지 밖에 안
왔어요.

南(宋漢虎) : 아, 예.

北(백남준) : 그리고 이 강냉이 대꼬리가 나올 때, 이 좌우 20日로 가면
그제 降雨량이 300 mm 는 내려야 되는데 150 mm 밖에 못 내렸어요.

그래 대단히 가물었는데, 논 농사도 잘 돼고 또 강냉이 농사도 잘돼
고. 그래서 논은, 논배미는 前年에 비해서 한톤 가량 더 증식될 것 같
습니다.

南(宋漢虎) : 어이구 그래 豊年이네요.

北(백남준) : 예.

南(宋漢虎) : 그리고 또 多幸입니다.

北(백남준) : 강냉이는 그제 한톤 오백 내지 두톤이 더 增收될 것 같아
요.

그래 지금 보면 이는, 논은 그것이 지금 우리 西海開門 建設해 놓았
지 않았습니까?

南(宋漢虎): 예, 그렇지요.

北(백남준): 그 德을 今年에 많이 보았지요.

南(宋漢虎): 하여튼 그렇게 建設해 가지고 그쪽의 모든 뭐, 쌀이든가 기
타 다른 食糧生産이 增産되면 좋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北(백남준): 예, 그리고…….

南(宋漢虎): 우리도 지금 今年에…….

北(백남준): 밭과, 이제 그 밭곡식은 그거 우리 噴水式 灌水로 했는데 그
德을 이제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農民들이 重要的 가을을 어저께 맞이하여 나라를 거
뒤 들이는데 그래 마음도 흡족하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도 한쪽으로는 조금 錯雜한 感도 있고 안타까운 기분도 있었습
니다.

봄에 우리하고 農民들은 같이 씨를 뿌렸는데 農民들은 豐足한 가을을
마련해오고 우리는 아무런 것도 이제 結實을 못보고, 그래서 苦盡甘來라
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樂이 온다고. 좀 忍耐를 가지고 이 對話 앞에 가로 놓
여있는 걸림돌들을 제치고 그러고 이 會談을 잘 해서 結實을 맺어서 겨
레 앞에 膳物을 좀 내놓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南(宋漢虎): 아, 그것 좋지요.

이제 그쪽에서도 豐年이 들었다고 그리하고 우리도 農林水産部 統計에
의하면 아직 完全히 다, 거기서 말하면 「벼 가을걷이」라고 그러

지요? 「벼 가을걷이」요.

北(백남준) : 벼 가을걷이 …….

南(宋漢虎) : 벼 가을걷이가 아직 안되었지만 한 3千9百餘萬섬 生産하고 해서 平年작을 웃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벼농사도 豊年이 됐는데, 事實上 아까 白先生이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會談은 잘 제대로 進展도 안되고 어떻게 開店休業狀態에 놓여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데 …….

北(백남준) :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

南(宋漢虎) : 그래 이제 우리 結實의 季節아닙니까?

그러니까 結實의 季節에 맞게 우리 會談도 잘 進展시켜 가지고 우리 거래들에게 좋은 열매를 안겨주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北(백남준) : 예, 오늘 會談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흐리던 날씨가 또 맑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마 會談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南(宋漢虎) : 글썄, 그러니까. 나도 車를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같은 생각을 했네요. 結局은 …… (一同웃음)

北(백남준) : 일이 잘 될 것 같습니다.

南(宋漢虎) : 나는 오다 보니까 이제 안개가 자욱하고 그러다가 도중에 있는데, 이제 안개가 걷히죠.

北(백남준) : 개이죠 …….

南(宋漢虎) : 그래, 내가 車中에서 어떠한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자, 이거 南北間의 여러가지 不信과 미움도 이렇게 안개가 걷히는 것 처럼 이제

아주 다 가시고 그야말로 和解와 사랑 그리고 우리 同胞愛를 가지고서 이 南北問題를 빨리 解決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카톨릭의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世界聖體大會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行事 다 끝나치고 요한 바오르 2세가 平和의 「메세지」를 마지막에 發表를 했는데, 거기에 제가 首席代表이기 때문에 좀더 感銘있게 본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南北의 韓國인들이 서로 尊敬心 가지고 또 信賴心 가지고 이렇게 和解를 이룩해서 그야말로 兄弟愛의 기쁨속에서 하루속히 再結合의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車中에서 아, 이것 참 우리가 南北間의 여러 가지 狀況이 非正常인데 하루속히 우리 이제 會談을 成事시켜 가지고 正常的인 南北關係, 좀더 和解하고 또 團結하고 그래서 이 對決을 우리가 빨리 清算하고 分斷의 障壁을 이렇게 헐어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北(백남준): 예, 그제 宋先生 뭐 聖體大會 말씀하시니까 우리 聖體大會와 關係해서 그쪽에 便紙를 보냈어요.

便紙를 보냈는데, 이제 宋先生 말씀하시지만 今年度에 우리 平壤에서는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世界에서 많은 首班들도 오고 그리고 180個 나라에서 青年代表가 오고, 그런데 같은 民族인데 남쪽에서는 參加하지 못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남쪽을 名譽손님으로도 招請을 했고 또 이제 大學生들도 招請했고, 그런데 平壤祝典場에는 저 大洋, 大陸을 건너서 數萬名의 青年學生들이 왔는데 우리 한테는 남쪽에서, 지척에 있는 남쪽에서는 못 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全大協」에서 代表를 派遣해서, 그래서 그저 共同의 祝祭로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측에서도 몇 千名 들어와서 같이 祝典場에서 이거 껴안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南(宋漢虎):저도 이제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는데,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 9月下旬에 5日동안에 걸쳐서 「世界 韓民族體育大會」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여개 國家에서 約 千5百名의 우리 海外同胞들이 參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中國이라든가 蘇聯에 居住하고 있는 우리 同胞選手들도 참가를 했고 또 150名, 150名씩 參加를 했고 또 이제 「사할린」에 사는 우리 同胞들이 50年만에 故國 땅을 밟아 가지고 自己 家族들과 親戚들 만나고 망향 50年만에 그 恨을 푼 그런 事實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한 핏줄, 한 民族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確認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특히 우리 2世들, 1世 뿐만 아니라 2世들, 3世들 젊은 사람들이 많이 參加를 해 가지고서 自己 자랑할 수 있는 祖國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自己 祖國이 그야말로 世界의 사람들로부터 부러움과 놀라움을 살 程度로 發展하고 번영하고 있는데 대해 한결같이 自負心을 느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北韓側도 여기에 參加를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分斷된 狀況에서 이렇게 世界 離散家族이라든가 혹은 「韓民族體育大會」를 갖는 것 보다는 統一된 狀況에서 갖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2世, 3世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보다 큰 自負心과 자랑과 기쁨을 안겨주었겠는가.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北(최우진) : 이제 兩側의 團長同志들 말씀, 이제 …….

南(宋漢虎) : 자, 다들 이야기를 하세요.

北(최우진) : 宋先生 말씀하는 것 들으면서 뭐를 생각해 보았는가.

이제 平壤과 서울에서 여러가지 큰 行事들을 進行하는데, 國際的 規模에서 …….

이거 빨리 우리 對話를 잘 진척시켜서 統一을 이룩해야지. 그런데 그 北과 南이 합쳐서 統一된 祖國에서 그와같은 行事들을 組織하면 우리 민족의 榮譽를 얼마나 더 世上萬邦에 떨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南(宋漢虎) : 예. 글썄 …….

北(최우진) : 그래서 우리 지금 7個月 동안이나 會談을 못했는데 오늘 잘 이것 해서 7個月동안 이룩하지 못한 이것 會談을 오늘 다 봉창하도록, 아마 그렇게 나가게 되면 상당히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南(宋漢虎) : 아, 그거야 나는 全的으로 贊同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北(백남준) : 이것 뭐, 統一이 못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또 이제 말씀하는데 「韓民族體育大會」를 가졌다.

우리는 또 朝鮮의 平和統一을 위한, 이런 海內外 同胞들이 「統一促進大會」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蘇聯·中國·카나다·美國에 있는 교포들이랑 다 參加하고 했는데 역시 또 남쪽에는 여기에 參加하지 못했던 말이야.

그래 이 모든 것을 봐서, 이것이 우리 지금 統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그저 統一이 되어서 뭐 朝鮮을 위한 좋은 大會를 한다, 그러면 그저 온 民族이 마주 앉아서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고 그러자면 우리 對話도 잘하고 빨리 統一해야 되겠어요.

이것 分斷 45年이 이거 짧습니까?

南(宋漢虎): 음, 그래요.

北(백남준): 그래 좀 우리 조금 이것 對話를 오늘 잘 해봅시다.

南(宋漢虎): 거기도 뭐 體育大會를 全國적으로 하는 게 있지요?

요즈음 報道를 보니까 무슨 「選手權體育大會」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北(백남준): 種目別로 體育大會를…….

南(宋漢虎): 예, 種目別. 그것은 언제쯤 끝납니까, 그것은?

北(백남준): 지금 進行中인데 이번 週日이면 끝날 것입니다.

南(宋漢虎): 그건 해마다 定期的으로 하는 것입니까?

北(백남준): 예, 해마다 하죠.

南(宋漢虎): 예, 그렇군요. 저희들도 이제 全國體育大會가 있어 가지고…….

北(백남준): 봄에도 하고…….

南(宋漢虎): 아, 그래요? 봄에도 하고. 아니 봄에 하는 것은 뭐 主席生辰이라든가 뭐 金正日 指導中央인가? 뭐 生日때 하는 경우 말고 다른

때 또 있습니까?

北(백남준) : 아, 그것을 그렇게, 뭐 그런 名節이야 물론 더 성대히 하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봄에도 春期, 全國의 만경대賞 爭取를 위한 무슨 競技 뭐 여러가지 많이 합니다.

南(宋漢虎) : 우리는 이제 가을에 한번 합니다.

그 前에는 「少年體育大會」가 봄에 있고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안하죠?

(金三勳代表를 向해)

南(金三勳) : 統合했습니다, 統合.

南(宋漢虎) : 예, 統合했나?

北(백남준) : 이제 그래 또 우리가 지금 가을걸이 기간이라서 그러지 조금 있으면 中央機關들, 中央機關들 體育大會도 지금 豫見하고 있습니다.

中央機關 政務院들 體育大會, 예.

南(宋漢虎) : 아, 그래요? 그래 그것은 뭐니까? 黨·政 다 승친 것입니까? 그러면 政務院…….

北(백남준) : 아, 그렇지요. 機關別로, 機關別로…….

北(최우진) : 政務院하게 되면 우리말로 우리 部·委員會의 事務員들…….

南(宋漢虎) : 아니, 그러니까 政務院 뿐만 아니라 黨이라든가, 무슨…….

北(최우진) : 아, 그러니까 外交部·貿易部 各部署의 事務員들, 事務員들 끼리 하는 것.

北(백남준) : 거, 政務院 對抗競技를 한다 이말예요.

南(宋漢虎) : 아, 그것 알겠어요.

北(최우진) : 事務員들이 體育大會를 하죠.

北(백남준) : 蹴球·籠球·排球·마라톤, 뭐 各種競技를 합니다.

南(宋漢虎) : 좋지요 뭐 다들 …….

北(최우진) : 그러하고 내가 오늘 板門店으로 나오면서 무엇을 또 생각해 봤는가 하면, 이거 지금 요전에 여러 갈래의 對話들이 즉 進行되었는데 …….

이 赤十字 實務接觸도 進行되고 또 이제 國會會談 豫備會談도 하게 되고 또 體育會談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위한 豫備會談, 이게 다른 會談보다는 조금 앞장서서 나아가야 되겠다. 어떻게 든 잘 좀 해서 …….

南(宋漢虎) : 글썄, 아까 우리 최先生 말한대로 하여간 過去것을 조금 만 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열심히, 誠實하게 합시다.

北(백남준) : 하하하 …….

北(최우진) : 그래서 우리 體育會談도 좀 우리가 支援해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故鄉訪問團·藝術團 交換하는 것도 잘 돼서 우리가 支援 되게끔 하고.

그래 우리 責任이 상당히 무거운 것 같습니다.

南(金三勳) : 貴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多幸스럽고 마음이 놓이는데, 지난 봄에 만나가지고 씨를 뿌려놓았고 가을이 왔으니까, 아까 그쪽에도 豐年이 들고 우리도 豐年이 들었는데 그 收穫을 거두어 들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 會談에서 이 會談을 잘 이루어 가지고 收穫을, 열매를 거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참 많이 하고 왔는데, 듣고 보니까 首席代表께서나 우리 최代表께서 다 좋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특히 이 當局間에 하는 高位當局者會談을 成事시키기 위한 이 豫備會談이 잘 되

어야 되겠다, 거 말씀하신대로

赤十字會談이다, 體育會談이다 이런 것들은 民間間에 接觸과 交流와 協力を 擴大하기 위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當局間의 會談을 하루속히 빨리 잘해야 됩니다. 가을에 結實을 거둬들이듯이 해야 되겠다.

거 뭐 두분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참 잘될 것 같습니다. 多幸입니다. 그리고 우리 代表는 「뉴욕」 잘 갔다 왔습니까?

北(최우진) : 예, 한주일 前에 왔습니다. 한주일 前에

南(金三勳) : 또 그러면 全世界가 어떻게 돌아 가는지.

和解와 協力の 時代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世界的인 물결과 潮流도 잘 보셨을 것이고, 우리 또 南北間에 그와같은 것을 못 이룰 理由가 하나도 없으니까, 會談은 잘될 것 같습니다.

北(최우진) : 그래서 빨리 本會談을 誕生시켜서 우리가 北과 南 사이에 政治·軍事的으로 對決되어 있는 것, 이것 빨리 解消해서, 解消하기로 합시다.

南(金三勳) : 政治·軍事問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잘 解決해야 하지요. 交流·協力도 하고

北(최우진) :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생각하는가 하면 貴側에서 이제 代表團 成員 두명이 바뀌었는데, 아마 새로운 기분을 가지고 오늘 對話에 임하지 않겠는가, 또 이런 期待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南(宋漢虎) : 자, 이제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期待를 가져도 괜찮을 것입니다. (一同웃음)

南(金保鉉) : 表情을 보니까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좋은 보따리를 많

이 가져오신 것 같은데 한번 期待해 보겠습니다.

北(최성익) : 인제 얼마 안 있으면 1980年代도 가지 않습니까?

統一의 熱望으로 들끓었던 1980年代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北(백남준) : 그 쪽에는 좋은 보따리 안 가지고 왔나요?

南(金保鉉) : 가지고 왔습니다.

北(백남준) : 그러면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一同웃음)

北(최성익) : 그래 來年度는 1990年代가 오고, 그래서 첫 해를 어떻게 統一의 突破口를 여는 그런 해로 만들자면 우리 會談 잘해서 어떻게 정말 統一의 전기를 마련하는 그런 계기로 나아갑시다.

南(金三勳) : 雙方 當局이 똑같은 마음 한 마음으로 임하면 안될 理由가 하나도 없어요.

北(최성익) : 예, 애기 죽하는 것들 보면 다 統一에로 가닿는 意向만 있다면 다 될것 같아요.

南(金三勳) : 그래요.

南(宋漢虎) : 자, 그럼 會議를 始作하죠.

우리 記者先生님들 자리를 조금 整理해 주시죠.

北(최우진) : 어떻게 龍先生 잘 계십니까?

南(朴鍾權) : 예, 잘 계십니다. 龍將軍은 昇進을 해서 다른 分野로 옮기셨습니다.

南(宋漢虎) : 그리고 白先生! 우리 代表 두 사람 交替되었기 때문에 우리 姜英勳總理의 信任狀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北(백남준) : 아, 예.

北(최우진) : 어떻게 龍先生 마주 앉아서 두번씩이나 會談했기 때문에 상

당히 깊은 인상을 받았었던 것인데, 또 이렇게 새롭게 朴先生 만나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北(최성익) : 廉氏입니까?

南(廉弘喆) : 예, 本이 어디세요? 本을 가지고 계십니까?

北(최성익) : 어떠래?

南(廉弘喆) : 우리 崔先生님 本이 어디시냐고요?

北(최성익) : 있기는 있습니다. 그 또 나는 本을 물어보지 않았었는데.

北(유성철) : 그러니까 龍先生 자리로 朴先生이 오셨습니까?

南(朴鍾權) : 예.

北(백남준) : 그저 慣例대로 우리가 먼저 發言하죠.

말씀드릴까요?

南(宋漢虎) : 예. 그렇게 하세요.

北(백남준)

<北側 基本發言>

南側代表여러분!

오늘 우리는 緩和와 對話에 대한 겨레의 要求와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에 대한 민족의 指向이 그 어느때 보다 強烈해지고 있는 때에 北南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마련하기 위한 第3次 豫備會談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3月の 2次會談 以後 7個月 以上 中斷狀態에 있던 우리의 豫備會談이 再開되어 雙方 代表들이 이처럼 다시 자리를 같이하게 된 것은 참으로 多幸스러운 일입니다.

對話의 中斷으로 잃어버린 7個月이라는 期間은 44年의 分斷의 歷史에

비하면 긴 期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雙方 代表들이 지니고 있는 任務의 重要性和 上程된 問題의 切迫性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짧은 期間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다 같이 보고 느끼고 있는 바이지만 言語와 皮膚色을 달리 하고 있는 나라와 民族들 사이에서도 지난날의 反目과 對決關係를 끝장내고 서로 和解하고 共同의 繁榮을 追求하고 있는 오늘에도 우리 나라에서만은 근 半世紀동안 持續되어 온 反目과 對決狀態가 解消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은 날을 따라 激化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不幸한 일이며 民族的 見地에서 볼 때 羞恥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러한 非正常的인 事態를 끝장내야 하며 남은 對決時代의 遺物을 대담하게 清算하고 同族으로서 眞實로 和解하고 團合하는 새시대를 안아와야 합니다.

우리側이 지난해 말에 北과 南사이의 政治·軍事的 對決狀態 解消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열것을 發起하고 올해초에 豫備會談을 마련하였으며 지금까지 會談앞에 가로놓인 難關을 除去하고 中斷된 對話를 再開하기 위하여 一貫한 努力을 기울여온 것은 바로 이와 같은 目的으로부터 出發한 것이었습니다.

모처럼 마련된 우리의 會談이 空轉과 不美스러운 中斷이 없이 順調로 이 진척되었더라면 이미 本會談이 열리고 緩和와 統一을 위한 길에서 劃期的인 前進를 가져왔으리라는 것은 疑心할 바 없습니다.

그러나 遺憾스럽게도 緩和와 和解와 團合을 위한 우리側의 誠意있는 努力은 應當한 結實을 맺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會談은 처음부터 試鍊과

迂餘曲折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會談은 열렸으나 空轉을 거듭하고 會談앞에 障礙物이 연이어 가로막아 나서고 또 中斷이 繼續됨으로써 우리의 豫備會談은 오늘 이때까지 原點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豫備會談이 이처럼 空轉과 中斷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는 사이에 緩和와 統一에 대한 온 겨레의 熱望은 더욱더 뜨겁게 噴出하였습니다.

情勢는 변하고 緩和와 統一에 대한 겨레의 指向은 前에 없이 強烈해졌으나 한걸음도 前進하지 못하고 踏步狀態에 있는 우리의 會談을 놓고 우리들은 深思熟考하여야 하며 자기의 責務를 다하지 못한 罪責感을 심각히 느껴야 할 것입니다.

空轉과 中斷의 不美스러운 前轍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北과 南 어느 一方도 對話霧圍氣를 흐리게 하고 信義를 저버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對話도 霧圍氣가 좋고 信義에 基礎하여야 成果的으로 推進될 수 있으며 實質的인 結實도 맺을 수 있습니다.

對話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실지로는 對話霧圍氣를 흐리게 하고 信義를 떠난 行動을 한다면 對話를 통하여 아무 것도 解決할 것이 없습니다.

對話相對方을 反對하는 戰爭演習이 벌어지는 속에서 信義를 前提로 하는 北南對話가 順調롭게 進行될 수 없다는 것은 지나간 歷史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우리는 이미 年初에 貴側에 올해에는 최소한 《팀 스피리트》 合同軍事演習을 하지 않을데 대한 意思表明이라도 해야 할 것이

라고 좋게 勸告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會談場에 나가 挑發의인 軍事演習을 中止할데 대하여 要求하고 軍事訓練을 하겠으면 外國軍隊의 參加없이 自己 軍隊만을 가지고 하고, 訓練規模도 大幅 줄이며 訓練名稱도 고칠데 대한 3個項의 緊急提案을 내놓은 것도 對話의 雰圍氣를 좋게 하고 信義에 基礎한 실속있는 對話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事實上 우리 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對話가 進陞되고 緩和와 統一의 새국면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世界人民들이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의 中止를 要求하여 나섰습니다.

그러나 內外人民들의 한결같은 反對에도 불구하고 不幸하게도 《팀 스피리트 89》合同軍事演習이 끝끝내 強行됨으로써 北南對話는 嚴重한 危機에 直面하게 되고 迂餘曲折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과 같은 戰爭演習이 벌어지는 속에서는 對話가 열린다해도 成果를 거둘 수 없다는 教訓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對話를 위하여 이제 다시는 軍事的 緊張을 造成하는 그 어떤 行動도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對話를 進展시키기 위하여 重要하게 나서는 問題는 民族的 和解와 團合, 나라의 統一을 위하여 한 義로운 일이 問題視되어 彈壓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같이 北南對話는 分裂과 對決이 아니라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고 나라의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데 그 目的이 있습니다.

分裂을 끝장내지 않고 對決을 持續시킬 바에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貴

重한 時間과 精力을 헛되이 消耗하며 對話를 하겠습니까?

北南對話가 民族的 和解와 團合, 나라의 統一을 이룩하기 위한 일인 것 만큼 그에 符合되는 行動에 대한 彈壓이 對話와 兩立될 수 없다는 것은 自명한 理致입니다.

그런데 지금 南朝鮮에서는 名望높은 民主人士 文益煥牧師가 平壤을 訪問하고 《全大協》代表 林秀卿學生이 平壤에 와서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에 參加하였다 하여 그들에게 罪 아닌 《罪》가 들썩워지고 苛酷한 彈壓이 가해지는 兪중한 事態가 造成되고 있습니다.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의 平壤訪問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北과 南, 온 겨레의 共同的 宿願인 나라의 統一偉業을 實現하는데 이바지하려는 지극히 義로운 소행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彈壓의 對象이 될 수 없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같이 70 高齡의 文益煥牧師는 나라와 民族이 갈라져 근 반세기가 가까워 오도록 民族內部에 和解와 團合이 아니라 反目과 敵對感이 날을 따라 깊어지고 分裂의 障壁이 높아가는 現實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分裂된 祖國을 後代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旣成世代로서의 責任感으로부터 한몸 바쳐서라도 統一의 門을 열어나가려는 國충정의 勇斷으로 北行길에 올랐으며 平壤滯留期間 對話와 統一의 디딤들로 되는 지극히 有益한 일을 하였습니다.

남녘의 學友들의 불타는 統一念願을 안고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에 參加하였던 林秀卿學生은 《祖國은 하나》이고 《朝鮮民族도 하나》이며 우리 나라와 우리 民族은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는 民族의 드팀없는 統一意志를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文益煥牧師나 林秀卿學生은 平壤에 와서 그 누구를 一方的으로 讚揚하

거나 誹謗한 일도 없으며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고 統一을 促進하는데서 극히 利로운 일만 하였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平壤訪問이 겨레의 念願에 全적으로 符合된다는 것을 確信하였기 때문에 平壤訪問을 처음부터 세상에 公開하였으며 우리側과 나눈 對話에 대하여서도 그 전모를 共同聲明과 共同宣言으로 確認하였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자기들의 愛國的 壯舉를 통해서 北과 南이 마주앉아 眞摯하게 討議한다면 思想과 制度를 超越하여 和解와 團合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林秀卿學生은 文奎鉉神父와 함께 板門店을 通過함으로써 北과 南을 가로막고 있는 軍事分界線이 결코 永遠한 障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確證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平壤訪問은 온 겨레는 물론 세상사람들의 커다란 支持와 共感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統一할 意思가 있고 和解와 團合을 바라며 北南對話에 關心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의 平壤訪問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訪問成果를 貴重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것처럼 장한 일을 한 그들은 南朝鮮으로 돌아가기 바쁘게 그리운 父母妻子와 兄弟들도 만나볼 사이도 없이 拘束되었으며 그들의 身上에는 지금 苛酷한 刑罰이 들썩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으며 全般的인 北南對話앞에 새로운 難關을 造成하는 不美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民族의 統一念願에도 背馳되는 것이며 우리의 對話가 成功的으로 進陟되어야 할 情勢의 要求에도 符合될 수 없는 일입니다.

事實上 우리는 이러한 立場으로부터 對話와 統一을 指向하고 나선 사람들에게 대한 그 어떤 彈壓도 있어서는 안되며 對話앞에 새로운 難關을 造成하지 않도록 忍耐와 雅量을 가지고 貴側에 알아들을 만큼 勸告도 하고 가능한 모든 努力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正當한 要求마저 實現될 수 없었으며 마침내 日程에 올라있던 우리의 豫備會談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北南對話들이 無期限 延期되는 非正常的인 事態가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에 대한 拘束處刑은 現時點에서 北南關係를 惡化시키고 對決을 激化시키며 雙方 對話雰圍氣를 해치는 가장 큰 要素로 되고 있습니다.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의 平壤訪問은 絶對로 罪로 될수 없으며 統一을 위한 일을 犯罪視하는 法이 있다면 그 法은 마땅히 撤廢되어야 합니다.

民族的 和解와 團合, 統一을 위해 우리와 接觸하고 對話를 한 사람을 《司法處理》하려는 處事는 어떤 理由로써도 正當化 될 수 없습니다.

한때는 《팀 스피리트》合同軍事演習으로 軍事的 緊張을 高潮시켜 對話의 앞길에 큰 障礙를 造成하였고 오늘에 와서는 統一의 길에 나선 사람들을 逮捕處刑하고 對決을 追求해 나선 處事를 두고 누구나 慨歎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內外人民들은 이러한 事態를 놓고 우리의 會談의 今後 展望에 대해서 깊은 憂慮를 表示하고 있습니다.

나는 北南對話의 進展을 가로막고 內外人民들에게 失望을 주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하여, 祖國統一을 一日千秋로 바라며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念願하는 겨레의 希望과 期待에 副應하기 위하여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不當하게 處刑하는 行動을 當장 中止하여야 하며 그들을 遲滯없이 釋放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強力히 主張하는 바입니다.

南側代表여러분!

지금 民族內部에 造成된 一連의 情勢는 우리의 豫備會談을 時急히 結束짓고 本會談을 하루빨리 마련할 것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貴側도 아는 바와같이 나라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위한 運動이 急速히 擴大發展하고 統一論議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南朝鮮에서 여러 政黨·團體 個別的 人士들이 聯邦制를 비롯한 統一方案들을 내놓고 있으며 南朝鮮 當局도 뒤늦게나마 《統一方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情勢의 要求에 맞게 民族共同의 統一方案을 摸索하려는 趣旨에서 얼마 전에 民族統一協商會議를 召集할데 대한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民族統一協商會議 方案에서는 우리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立方案과 함께 南朝鮮 當局과 政黨·團體들이 내놓은 統一方案들을 廣範히 協議하고 統一方途에 관한 民族의 共同宣言을 發表할데 대한 問題와 이밖에 나라의 平和統一을 促進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의 建設的인 提案들을 討議할 수 있을 것입니다.

民族統一協商會議 召集과 關聯하여 우리는 이미 그 提案이 담긴 便紙를 貴側 當局에도 보냈습니다.

이 機會에 나는 우리의 時期適切하고도 公明正大한 民族統一協商方案에 대하여 貴側 當局이 誤解와 疑心, 偏見을 대담하게 털어버리고 혼연한

마음가짐으로 眞摯하게 檢討하고 肯定的으로 呼應해 나서리라는 期待를 表明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좋게 발전하는 情勢의 要求에 맞게 民族統一協商會議가 좋은 雰圍氣에서 成果的으로 召集되며 우리의 本會談을 시급히 마련하여 당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하루빨리 緩和함으로써 祖國統一의 새 局面을 열어놓기 위하여 雙方 總理를 團長으로 하는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早速히 마련하여 祖國統一의 앞길에 有利한 局面을 열어나가려는 一念에서 實務節次問題와 關聯한 우리의 意見을 提起하려고 합니다.

이미 雙方이 내놓은 實務節次案들을 比較하여 보면 一部 共通點과 類似點도 있으나 會談名稱과 會談議程 등 根本的인 問題들에서 差異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問題들에서 雙方 사이 主張이 크게 엇갈리는 條件에서 合意를 이룩하자면 合意의 基準點을 어디에 두는가 하는 原則的 問題부터 바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선 實務節次案이 本會談의 性格과 使命에 符合되게 정하는 것을 先次的 基準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貴側도 아다시피 우리가 마련하려는 本會談은 北南關係에서 提起되는 全般的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會談이 아니라 北과 南사이의 不信의 要因인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決하는 것을 基本使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만큼 會談名稱, 議程, 代表團 構成 등 實務節次問題는 이에 徹底히 服從시켜 設定하는 것이 가장 合理的인 것입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우리는 會談名稱을 우리가 이미 提起한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認定합니다.

그렇지 않고 會談名稱을 貴側의 主張대로 《高位當局者會談》·《總理會談》으로 하면 會談本來의 性格과 目的에 잘 어울리지도 않을 뿐아니라 經濟, 體育, 赤十字 등 다른 部門會談들과의 關係에서 混亂이 생길 수 있으며 잘못하면 北南關係에서 提起되는 여러 분야의 問題들을 이것저것 다 다루는 會談으로 混同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會談이 열리게 된 經緯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側 總理의 지난 해 11月 16日과 올해 1月 16日附 便紙들에서 우리가 提議한 것은 北南 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하자는 것이었으며 貴側 總理도 그에 肯定的으로 呼應해 나섬으로써 이 會談이 마련되었으므로 會談名稱을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會談議程問題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가 提議한대로 《北과 南 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할데 대하여》로 單一化하는 것이 會談의 性格에도 가장 알맞으며 會談을 마련하려는 本來의 趣旨에도 잘 符合됩니다.

우리의 議程은 우리가 會談에서 討議하려고 하는 政治問題와 軍事問題를 어느 하나에 치우침이 없이 一目瞭然하면서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雙方의 主義主張이 各異한 條件에서 그것들을 包括하는 共通分母를 찾아 가지고 議題의 폭을 넓혀 單一化하는 雙方 對話의 一般的인 慣例나 議題設定의 要求를 모두 滿足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議程대로 하면 北南사이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데서 나서는 問題들을 폭넓게 討論할 수 있으며 個別討議方式과 一括討議方式을 結合할 수 있으므로 合意를 이룩하는데서도 매우 合理的이며 能率的입니다.

그러나 貴側이 내놓은 議程은 우선 內容에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緩和함에 있어서 반드시 討議되어야 할 重要問題들이 빠져있고 軍事問題에 대한 比重이 매우 弱化되어 있는 反面에 本會談의 趣旨와는 거리가 먼 副次的인 問題들이 많이 끼어있어 政治·軍事會談으로서의 性格에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貴側의 主張대로 會談議題를 細部化하여 쪼개여 놓으면 問題討議의 폭이 制限되고 自繩自縛의 後果를 招來하여 自由로운 問題討議에 支障을 주게 되는 등 非合理的인 側面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우기 會談이 進行되는 期間에 提起되는 새로운 중요한 問題들에 대해서는 討議할 수 없게 되거나 豫備會談을 다시 열고 그것을 議題로 追加決定하여야 하는 不便을 겪어야 합니다.

事實上 貴側처럼 問題를 細部化하여 놓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더 追加되어야 할 議程이 무수히 많습니다.

結局 議題를 細部化하는 것은 雙方 사이의 合意를 더욱 어렵게 하여 本會談을 하루빨리 誕生시키는데 支障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會談議程은 《北과 南사이의 當面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데 대하여》라는 單一한 包括議題로 하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議程은 貴側의 細部化된 議程을 모두 수용하고 있으므로 貴側이 특별히 反對할 理由가 없다고 봅니다.

代表團構成問題 역시 會談의 性格, 討議問題 取扱比重 등에 따라 比率를 決定하는 것이 一般的 常例이고 普遍的 原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政治·軍事會談에서는 政治問題 못지 않게 軍事問題가 크게 다루어질 것이 豫見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代表團構成에 軍代表數를 1名으로 局限시키는 것은 尙當하지 않으며 최소한 軍代表가 2名 程度 包含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次 本會談場所는 우리가 北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을 發起한 것만큼 應當 平壤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貴側이 굳이 1次 本會談場所를 서울로 할 것을 바란다면 우리로서는 讓步할 用意가 있습니다.

代表團 隨員數問題도 우리로서는 20名이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貴側이 40名을 提起하고 있는 條件에서 그것을 折衷하여 30名으로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끝으로 上程된 實務節次問題들에 대한 討議가 원만히 進行됨으로써 우리의 이 豫備會談이 早速히 마무리되고 本會談이 빠른 時日안에 개최되게 되리라는 希望과 期待를 表示하는 바입니다.

南(宋漢虎) : 手苦하셨습니다.

北(백남준) : 감사합니다.

南(宋漢虎) : 뭐 물 줌드시고…….

北(백남준) : 예, 고맙습니다.

南(宋漢虎) : 이것, 이 물은 아마, 우리 여기 앞에 보시다시피 새로운 建物を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샘플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서…….

北(백남준) : 거기서요?

南(宋漢虎): 예, 거기에서 나온 샘플입니다.

뭐 어쩐지 「신덕샘물」하고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北(백남준): 예, 글썽 그 成分分析은 뭐 代表團들이야…….

물맛은 아주 괜찮구만요.

北(최우진): 신덕샘물은 宋先生이 좋아 하시는데 그것 한번 갖다가 區別
해 보세요. 한번 判斷해 보세요.

南(宋漢虎): 그래요, 다음에 신덕샘물 좀 가져오세요. (一同웃음)

北(백남준): 아니, 本會談을 열어 놓고, 平壤에 와서 신덕샘물도 마시고…

南(宋漢虎): 아, 예…….

北(백남준): 나는 좀 많이 마십니다.

南(宋漢虎): 그럼 제가 準備한 發言文을 읽겠습니다.

〈우리側 첫發言〉

오늘 우리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마련하기 위해 세번째로 豫備會
談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먼저 오늘의 豫備會談에 參席하기 위하여 이 곳 板門店 우리側
地域 「平和의 집」에 온 北側代表團 여러분을 歡迎합니다.

돌이켜 보면 雙方總理를 首席代表로 하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成
事시키기 위하여 금년 2月 첫 豫備會談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때만 해
도 會談에 參席하고 있는 우리 代表들 뿐만 아니라 온 겨레는 南北關
係 改善과 平和統一의 새 局面이 열릴 것이라는 커다란 期待에 차있었
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豫備會談은 貴側이 지난 두차례의 會談에서 議題와는 아

무런 關係도 없는 問題를 들고 나와 會談의 進전을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本會談 開催를 위한 實質的인 討議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4月中에 갖기로 合意한 第3次 豫備會談 마저도 貴側의 一方的인 會談延期 通報와 南北關係를 악화시키는 一連의 二重의 態度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미루어 오는 등 非正常的인 狀態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跋行的이고 지지부진한 豫備會談의 進行狀況에 대하여 깊은 憂慮를 禁할 수가 없으며 아울러 遺憾의 뜻을 表示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北側代表 여러분!

나는 지난 2月8日 이 자리에서 열린 第1次 豫備會談에서 雙方 總理들 사이에 오고 간 편지들을 基礎로 하여 서로 원만한 妥協을 이룩함으로써 온 겨레가 期待하고 있는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하루 빨리 開催할 수 있도록 最善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月2日에 開催된 第2次 豫備會談에서도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의 重要性和 時急性을 강조하고 조속히 具體的인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갈 것을 거듭 促求한 바 있습니다.

貴側도 아는 바와같이 「7.7宣言」以後 우리側은 南北關係를 改善하고 平和統一의 길을 열기 위한 努力을 加速化하고 있습니다.

우리側은 貴側에 대한 中傷과 誹謗을 中止하고 南北間의 交易의 門戶를 開放하였으며 貴側의 國際舞臺活動이나 우리 友邦國과의 接觸을 支持하는 등 南北關係 改善을 위한 雰圍氣 造成에 성의있는 努力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側은 分斷 40餘年間 累積된 깊은 不信과 오랜 對決·敵對關係를 解消하고 南과 北에 살고 있는 온 겨레가 하나의 共同生活圈을 形成해 나감으로써 窮極의 單一民族國家를 建設하기 위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闡明함으로써 南北關係 改善과 統一로 나아가는 方向을 분명히 提示하였습니다.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은 南北間 諸分野에서의 交流·協力과 並行하여 政治·軍事問題도 協議·解決할 것을 밝히고 있어 貴側의 立場도 충분히 考慮한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周知시키고자 합니다.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고 交流와 協力を 活性化하며 그럼으로써 한 핏줄, 하나의 言語, 하나의 文化傳統, 하나의 삶의 터전위에서 共存共榮하는 民族共同體를 回復·發展시켜 나가자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7千萬 겨레의 한결 같은 所望입니다.

冷戰體制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온 南北間的 敵對와 對決關係를 清算하고 「和解와 協力」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責任과 權能을 가지고 있는 雙方當局間에 現實認定과 相互尊重의 정신에 기초하여 南北關係 改善을 追求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雙方 當局間的 성실한 對話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南北當局間的 對話에서는 多角的인 交流·協力の 기틀을 마련하고 緊張을 緩和하기 위한 措置를 강구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 우리 民族共同體가 回復·發展되고 平和統一의 基盤은 굳건히 다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見地에서 나는 이 豫備會談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南

北高位當局者會談」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北側代表여러분!

우리는 보다 前向的인 姿勢에서 會談을 建設的으로 運營하고 雙方에게 다같이 유익한 合意를 도출해 내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나는 貴側이 이번 會談부터는 보다 生産的인 對話姿勢를 가질 것으로 期待하면서 「南北高位當局者會談」開催를 위한 實務節次 問題에 대해 우리側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지난번 第2次 豫備會談에서 第1次 豫備會談때 雙方이 내놓은 提案內容을 比較 檢討하고 서로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①本會談 名稱 ②隨行員 數 ③第1次 本會談의 開催場所 ④本會談 議題 등을 하나 하나 討議·解決해 나갈 것을 促求한 바 있습니다.

나는 이 네가지 문제가 원만히 解決된다면 「本會談의 運營節次」에 속하는 나머지 문제들 즉 ①會談形式 ②合意書 採擇 ③會談記錄 ④會談報道 ⑤會談場 標識 ⑥身邊安全保障 ⑦板門店 通過節次 ⑧滯留日程 ⑨便宜保障 ⑩直通電話 ⑪儀典 등은 雙方間에 별로 큰 見解差異가 없을 뿐만 아니라 從前 慣例를 준용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내에 本會談을 開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見解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雙方間에 見解差異가 있는 네가지 問題에 대해서 우리側 意見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本會談 名稱問題입니다. 本會談 名稱問題에 대해서는 우리側이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자고 한데 대하여 貴側은 「南北高位級 政治·軍事會談」으로 하자고 主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第2次 豫備會談때에 이미 말한 바와같이 本會談이 雙方 總理를 비롯한 高位當局者들이 마주 앉아 會談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순한 政治軍事問題만으로 議題를 制限해서 討議할 것이 아니라 南北間의 交流·協力問題와 같은 다양한 南北關係 問題들이 폭넓게 論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名稱을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貴側이 南北間의 다각적인 交流와 協力の 실시를 반대하지 않는 한 굳이 「政治·軍事會談」이라는 制限된 名稱을 고집할 理由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問題는 이미 우리側이 제안한대로 「南北高位當局者會談」 또는 「南北總理會談」으로 쉽게 合意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本會談 議題問題입니다. 우리側은 本會談의 議題로서 ① 相互 誹謗·中傷中止 問題 ② 相互尊重 및 不干涉 問題 ③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實施 問題 ④ 軍事的 信賴構築問題 ⑤ 南北頂上會談 開催 問題 ⑥ 其他 雙方이 提起하는 問題 등 6個項을 提案하고 있는데 대해 貴側은 「南北間의 當면한 政治軍事的 對決狀態를 解消하는 問題」라는 單一議題를 提案하고 있습니다.

나는 本會談 議題가 具體적으로 明示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래야만 本會談을 效率的이며 生産적으로 運營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貴側 주장대로 다양한 내용을 한꺼번에 包括적으로 담고 있는 單一議題로 한다면 本會談에서 또다시 具體적인 議題들을 討議·合意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南北의 總理들이 서울과 平壤을 오고 가면서 그것도 짧은 시간밖에 會談할 수 없는 자리에서 새삼스럽게 細部議題를 정해야만 한다는 것은 너

무나도 非生産的이고 非效率的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나는 貴側이 우리側에서 내놓은 6個項 議題에 同意해 올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그간 南北間에는 여러차례에 걸친 人的往來가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人的往來를 制度的으로 뒷받침하는 아무런 合意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입니다.

따라서 人的往來에 대비한 通行安全保障을 위해 「南北通行·通信에 관한 一般 合意書」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側이 제의한 議題 第③項 즉, 「多角的인 交流와 協力 實施 問題」 討議時 이 問題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적 과제로 討議·解決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 本會談 代表團 構成問題 입니다. 本會談 代表團은 雙方 總理를 首席代表로 하여 7名의 代表로 構成하고 50名의 報道陣을 대동하는데에 雙方이 意見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雙方間에 意見差異가 있는 것은 代表團 7名中 우리側이 軍參謀 總長級 1名을 包含하자고 主張한데 대해 貴側은 軍實權者 2名을 包含하자고 한 점과 隨行員 數를 우리側이 40名으로 한데 대해 貴側은 20名을 주장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 隨行員問題에 대해서는 이제 貴側이 첫 發言을 통해서 30名으로 하자고 修正提議해왔기 때문에 이 問題는 나중에 다시 또 檢討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선 軍代表에 대해서 「軍實權者」라는 막연한 표현을 쓸 것이 아니라 분명히 「軍參謀總長級」이라고 그 級을 명시해야 서로 불필요한

混亂을 惹起하지 않을 것이며, 그 數도 우리側으로서는 1名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편 隨行員數 問題는 雙方 高位當局者들이 만나 南北間의 懸案問題들을 폭넓게 그리고 眞摯하게 討議해야 하는 會談인 만큼 30名이 아니라 40名 정도의 實務者들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本會談의 開催日時 및 場所問題 입니다. 本會談 開催日時は 이미 雙方間에 「豫備會談 妥結以後 1개월 이내에 開催한다」는데 意見一致를 보고 있으며, 場所問題도 「서울과 平壤에서 번갈아 開催한다」는데 意見を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貴側에서 첫 發言을 통해서 서울과 平壤中 어느 곳에서 먼저 開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側이 希望한다면 서울에서 먼저 開催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同意로 해 온데 대해서 多幸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네가지 問題에 대해서 雙方間에 다소의 見解差異가 있는 하지만 本質的으로 解決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나는 貴側이 雙方 總理들간의 서울·平壤 本會談을 반드시 成事시키고 南北間에 信賴를 回復하고 緊張을 緩和시키겠다는 입장에만 선다면 오늘 會談에서 實務節次 問題에 妥結을 보지 못할 아무런 理由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나는 貴側이 첫 發言에서 節次問題와 關聯해서 좀더 眞摯한 討議가 있을 것을 期待했습니다만 다시금 會談外的인 問題를 들고 나와서 우리의 會談運營에 障礙를 造成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슨 「팀스피리트」訓練問題라든가 혹은 文益煥이다, 林秀卿 問題를 가지고 이야기 하고 있고 擧論한데 대해서 대단히 遺憾스럽게 생각하면서

나는 會談의 正常的인 運營을 위해서 부득이 貴側의 政治工作行爲라든가 不誠實한 對話姿勢에 대하여 몇가지 言及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팀스피리트」訓練으로 말하자면 이미 지난 1次와 2次 豫備會談에서 貴側이 이 問題를 提起를 했습니다. 1次 會談에서는 「팀스피리트」訓練 問題하고 우리의 무슨 出版物 處理問題를 다시 舉論하면서 會談雰圍氣가 어떻느니 하면서 사실상 實質問題討議를 拒否했습니다.

그리고 또 第2次 會談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팀스피리트」訓練問題를 다시 들고 나와서 무슨 3個項의 緊急提案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세워서 사실상 그 問題를 會談의 前提條件으로 내세워서 우리 會談의 進展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1次會談과 2次會談 때에 우리의 立場을 分明히 밝혔습니다. 우리의 會談하고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것이고 南北 對話의 進行에 별로 關係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會談外的인 問題를 가지고서 이 會談場에서의 會談을 正常的으로 運營하는데 방해하지 말 것을 促求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立場은 지금도 우리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問題를 다시 들고나온 것은 온당치 못한 對話姿勢라고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最近 貴側이 취한 對話姿勢를 보면 政府當局間의 對話라든가 人道主義的인 赤十字會談은 忌避하거나 空轉시키면서 아무런 代表성과 權限도 없는 全民聯이나 全大協 등 在野團體의 要求에 대해서는 맞장구치며 적극 呼應하는 등 矛盾된 態度를 취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貴側은 한편으로는 對話를 하는 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文益煥 등 우리側 特定人士를 貴側 地域에 몰래 불러들여 여러가지

政治的 目的에 利用하는 등 政治工作을 감행함으로써 南北關係를 악화시키고 圓滑한 南北對話의 推進을 妨害해 왔습니다.

우리側은 그동안 貴側에 대해 여러차례에 걸쳐 이같은 政治工作行爲를 즉각 中斷하고 正常的인 南北對話에 呼應해 올 것을 거듭 促求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貴側은 이에 대해 肯定的으로 대답해 오기는 커녕 오히려 政治工作行爲를 正當化하는 宣傳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같은 行爲들은 우리側 當局과 아무런 事前 協議나 諒解도 없이 貴側 當局에 의해 恣意的으로 저질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우리側에 대해 부당한 內政干涉的인 要求를 하는 것은 우리 國民 어느누구도 이를 容納하지 않을 것입니다.

貴側이 이같은 政治工作行爲를 계속하는 한 이는 南北關係를 더욱 惡化시키고 緊張을 激化시키는 결과를 招來하게 될 것이며 平和와 統一을 바라는 우리 民族의 指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南北間의 敵對와 對立關係를 和解와 協力關係로 轉換시키고 平和的 統一의 길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責任과 權능을 가지고 있는 雙方 當局間에 現實認定과 相互尊重의 精神에 基礎하여 대화를 推進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南北 當局間의 對話를 正常的으로 進行하려면 상대방의 체제를 破壞·顛覆시키려는 政治工作行爲를 중단해야 하며 상대방의 內部攪亂을 目的으로 하는 宣傳·煽動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貴側이 政治工作的 形態로 몰래 平壤으로 불려 들어간 우리側 一部人士들에 관한 問題를 舉論하고 그들을 釋放하라는 등 부당한 要求를 하면

서 우리側에 대해 內政干涉的인 發言까지 한데 대해 그 부당성을 指摘해 두고자 합니다.

文益煥·林秀卿·文奎鉉 등은 貴側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罔연한 大韓民國의 國民입니다. 大韓民國의 國民은 당연히 大韓民國 法律의 保護를 받을 權利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지켜야 할 義務도 아울러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主權國家에게도 다같이 適用되는 基本原理이고 貴側의 경우도 아마 例外가 아닐 것입니다.

文益煥·林秀卿·文奎鉉 등은 우리側 政府의 許可도 받지 않고 몰래 不法入北하여 우리의 現行法을 위반한 犯法者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땅히 大韓民國 司直當局의 罔정한 재판에 의해 刑量이 가려져야 하며 貴側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하고 干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을 不法的으로 北으로 끌여들여서 우리에게 자극적인 행동을 저질렀는데 대해 貴側이 뉘우치거나 혹은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들에 대한 司法處理를 是非하고 誹謗하는 것은 賊反荷杖이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기 이 南北高位當局者會談을 위한 豫備會談에 대표를 派遣하고 있는 貴側의 祖國平和統一委員會는 『南朝鮮의 各界 各層 人民들과 靑年學生들은 이들 拘束者를 處刑하려는 南朝鮮 통치배들의 폭거를 沮止시키기 위한 鬪爭에 더욱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한다』는 등, 우리 政府에 대한 反對鬪爭을 煽動하고 兇동질하는 聲明까지 發表하였습니다.

이같은 行動이야 말로 對話相對方에 대한 노골적인 挑發行爲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대해 貴側은 마땅히 責任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貴側은 이른바 「民族統一協商會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民族統一協商會議」 주장은 조금도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난 40여년간 줄곧 貴側이 주장해 왔던 「南北連席會議」方式을 각색한 것으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會議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거기에 參加할 우리側 代表나 團體를 貴側이 一方的으로 指名하는 태도는 동서고금을 통해 先例를 찾아볼 수 없는 無禮하고도 非常識적인 行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當局·政黨·團體들이 네편 내편도 없이 둘러앉아 統一問題를 協議하겠다고 하는 것은 南北의 分斷現實을 외면한 것이고 결코 統一問題를 성실하게 協議·解決하겠다는 姿勢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統一問題는 權限과 責任을 갖고 있는 南北當局間의 會談을 통해서 協議·解決되어야 하며 群衆集會式 會議方式으로 풀수 없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자명한 것입니다.

나는 貴側이 진정으로 對話를 통해 南北의 懸案問題를 協議할 의사가 있다면 「民族統一協商會議」와 같은 統一戰線方式의 主張을 더이상 되풀이하지 말고 하루빨리 責任있는 南北當局間의 對話를 正常軌道에 올려놓는 일부터 誠意를 보일 것을 促求하는 바입니다.

나는 우리 高位當局者會談을 하루빨리 成事시켜서 南北間에 交流와 協力과 緊張緩和 問題를 協議·解決함으로써 平和統一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北(백남준) : 다 말씀하셨어요?

南(宋漢虎) : 예, 말씀을 하시지요.

北(백남준) : 이제, 宋先生 發言을 했는데, 比較的 길게 發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우리의 立場을 밝혀야 하겠다. 해야 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그런 問題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問題들에 대해서는 이제 뒤로 내려가면서 우리의 立場을 밝히겠지만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은 貴側에서는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 問題와 關聯해서 우리로서는, 우리로서는 정말 同族으로서 가슴 후련한 그런 貴側의 이야기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期待를 했는데, 전혀 期待하고는 어긋나는데 대해서 遺憾을 表示할 수 없습니다.

특히 貴側에서는 이들의 平壤訪問問題를 놓고 體制顛覆을 위한 무슨 政治工作이다, 무슨 內部攪亂을 위한 무슨 宣傳煽動이다.

그 다음에 무슨 우리 大韓民國의 法을 가지고 우리 法을 適用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無禮하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代表性도 없는 그런 말하자면 團體들하고 連繫를 가지느냐, 內政干涉이다, 무슨 前題條件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 問題와 關聯해서 重視할 수 없습니다.

나는 貴側의 實務節次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注意해서 討論하겠지만, 그래도 實務節次 問題와 關聯해서 무슨 좀, 雅量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도 달라진게 없습니다.

反面에 무슨 우리가 貴側의 體制顛覆을 企圖한다. 貴側의 內部攪亂을 試圖한다, 煽動한다, 뭐 南北連席會議 方式이다, 뭐 統一戰線方式이다.

뭐 이런 式으로 全面的으로 問題를 舉論하는데 오늘 이 會談劈頭부터 이 問題에 대해서 重視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뒤에서 우리 具體的으로 다 이제 우리 立場 밝히겠습니다.

文益煥牧師나 林秀卿學生이나 文奎鉉神父가 우리의 操縱에 의해서 또 우리의 煽動에 의해서 그래서 平壤을 訪問하고 왔다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平壤을 訪問하고 돌아간 問題와 關聯해서 우리더러 우리들의 政治工作이다, 우리들의 宣傳·煽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바로 이 民族分裂, 民族分裂이 이런 悲劇的인 事態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자기들이 어떤 個人的 名譽나 利益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北과 南사이 和解와 平和統一을 위해서 자기들의 信念과 決心에 따라서 平壤을 訪問하고 간 겁니다.

그리고 平壤에 와서 좋은 일을 하고 統一을 위해서 좋은일 하고 돌아갔는데 이걸 우리를 걸어서, 우리를 걸어서 우리의 工作에 의한거다, 우리의 煽動에 의한거다, 이렇게 하는것은 이것은 아주 꺼꾸로된 이런 論理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貴側의 무슨 社會混亂이다, 貴側에서 무슨 國論分裂이다 하는 그 自體는 貴側 內部要因에 의해서 內部矛盾에 의해서 그것이 생기는 것이고, 그 責任으로 말하면 貴側 當局에 있습니다.

또 訪北人士들, 訪北人士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信念에 基礎해서 어떻게 하면 나라의 이 分裂된 悲劇을 清算하고 統一을 앞당기겠느냐, 어떻게 하면 北과 南이 和解를 하겠느냐 하는 이런 衷情으로부터 平壤을 訪問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와 結付시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南側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와 相關없는 問題를 가지고 우리를 걸어가지고 反共 反共和國 對洪소동을 하는 이른바 南朝鮮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政治工作, 진짜 宣傳·煽動行爲를, 行爲에 대해서 그것을 輿論을 誤導하기 위한 目的을 追求하는 것이다 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現 時點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北과 南사이의 對決과 緊張을 激化시키고, 우리 이젠 對話앞에 難關을 造成하는 重要한 問題가 林秀卿學生·文益煥牧師·文奎鉉神父에 대해서 貴側이 問題視하고 處刑하려는 것과 主要하게 關聯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對話를 위해서, 對話의 進展을 위해서 統一問題의 實現을 위해서 우리는 貴側이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그들을 拘束하고, 處刑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釋放해야 한다고 다시 促求합니다.

왜냐하면 이 問題와 關聯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왜 이들의 問題 이들을 이거 이렇게 處刑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그러나?

우선 이들이 平壤에 왔다가 돌아간 그 모든 것은 愛國的 所行이고 義롭고 正當한 活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民族分裂의 이런 悲劇的인 이런 事態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北과 南의 和解와 團合, 對話와 平和統一을 위해서 그의 새로운 突破口를 어떻게 하면 마련해 보겠는가 하는 이런 崇高한 目的에서 平壤을 訪問하고 돌아갔고, 그들은 平壤에 와서 어느 一方을 攻擊했거나, 어느 一方을 非難하거나 支持한 일이 없습니다.

또 그들은 누구의 指命을 받은 일도 없고 應當히 이것은 우리 겨레들에 있어서 歡迎을 받아야 할 일이고 讚揚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處刑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 그들이, 그들 自體의 그런 말하자면 所行自體를 놓고 보더라도 이들을 處刑하면 안되겠다.

둘째로, 지금 이들의 訪問問題를 가지고, 지금 北과 南사이에 對決과 緊張을 激化시키고, 對話앞에 難關을 造成하고 있는 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그건 아마 宋先生도 否定 안 할겁니다.

이들의 問題가지고 現 時點에서는 北南關係가 좋지 못합니다. 對決이 高潮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우리 對話에 좋은 霧圍氣를 가져오지 못하고 對話앞에 障礙로 됩니다.

統一을 위해서 좋은일을 한 사람들을 그것도 또 對話의 一方인 우리를 걸고서 그것을 이제 處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이게 對話가 되며 어떻게 和解와 團合의 霧圍氣에서 이 會談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現 時點에서 北南關係에서 이런 對決을 激化시키는, 緊張을 高潮시키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對話앞에 障礙를 造成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걸 없이 하자면은 이들을 問題視하지 말아야 된다.

또 셋째로는, 이들의 訪北問題를 가지고서 拘束하고 處刑하려고 하는것은 이제 우리 會談의 原理에도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 앉은 것은, 宋先生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統一을 위해서 이렇게 마주 앉았는데 뒤에 돌아앉아서는 統一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을 問題視하면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貴側에게 첫 發言에서도 그런 것을 提起를 했고, 다시금 이 問題와 關聯해서 이런, 그 말하자면 이런 訪北人士들에 대해

서는 이걸 拘束하고, 뭐 司法處理한다 어쩐다 이렇게 하지 말고, 釋放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宋先生이 거기에 대해서 좀 答辯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南(宋漢虎) : 아까 뭐, 白先生 오늘 貴側이 文益煥이라든가 혹은 林秀卿에 관해서 무슨 좀더 나로부터 이 肯定的인 어떤 答辯을 期待했는데 失望했다 그러는데, 그 말은 오히려 내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事實上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貴側이 우리에게 대해서 여러가지 刺戟的인 行動을 했고, 또 文益煥이라든가 혹은 林秀卿을 불러 들여 가지고 이 會談雰圍氣를 깨고 南北間에 緊張을 造成한 것에 대해서 좀더 反省을 하고 또 是正할 그런 意思를 밝힐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히려 우리 內部問題에 대해서 干涉을 하고 또 이들에 대한 司法處理가 이리쿵 저리쿵 어떻게 하면서 非難하는 것을 볼 때 과연 貴側이 高位當局者會談을 成事시킬 그런 意思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누구와 더불어 이 南北의 懸案問題를 解決하려고 그러는지 疑心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文益煥으로 말하며는 사실상 우리 國民을 代表로 어떤 資格이라든가 혹은 어떤 代表權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서 무슨 貴側이 무슨 「聯邦制」가 必然的인 方途라느니 뭐 「汎民族大會」 支持한다느니 이런 式으로 貴側의 一方的인 主張을 담은 그런 共同聲明을 發表하면서 마치 그것이 무슨 뭐 南北問題의 解決에 아주 劃期的인 方案인 것 처럼 政治宣傳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學生을 오랫동안 묶어두어 가지고 우리를 非難하는 政治宣傳에 利用하는가 하면 또 板門店을 여러가지 示威라든가 혹은 斷食의 마당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南北에 오히려 不信과 緊張을 더 새롭게 造成하는 이와같은 行動을 했습니다.

나는 이와같은 貴側의 態度를 볼 때 진짜 生産的인 對話에 關心이 있는 것인지 말이지요, 오히려 우리 內部를 混亂시키고 또 우리의 여러가지 社會秩序를 攪亂시킬려는 이와같은 工作的인 次元에서 對話를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대단히 遺憾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南北韓에서 現實的으로 統治權을 行使하고 있고 또 權限과 責任이 있는 그런 政府當局間的 對話는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뭐 어떤 우리 一部 여러 社會團體中의 하나에 不過한다든가 또는 한사람에 不過한 이런 在野人士라든가 이런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서 무슨 合意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으로 과연 實效性있는 合意를 할 수 있고 또 南北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南北의 무슨 統一問題라든가 南北關係 改善問題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權限과 責任을 가지고 있는 政府가 서로 나서가지고 協議·解決하는 겁니다.

특히 南北의 여러가지 紛爭·對立關係를 解決하는 問題는 어느 個人이 나서가지고 協商을 한다든가 또는 對話를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됩니다.
北(백남준) : 이제 제 말씀을…….

南(宋漢虎) : 아니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를 다 할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當局間的 對話를 통해서 해야 된다.

만일에 個人이나 혹은 團體가, 民間團體가 나서서 한다 하게 되면 이것은 그 統一政策에 推進의 主體인 그 政府가 그 權限의 一部를 委任한다든가 혹은 代理로 했을 때 한해서만 合法的으로 할 수 있는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常識입니다. 이걸 常識인 것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文益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럼 과연 政府로부터 무슨 許可를 받고 그러한 權限을 받고서 갔느냐? 받고 갔느냐? 그렇지 않다, 안받고 갔다. 몰래 不法的으로 貴側으로 가서 우리의 實定法을 違背하고 우리의 國家主權을 사실 侵害했습니다.

文益煥 自身도 公開인 記者會見席上에서 이야기 했어요. 自己는 故意的으로 實定法을 違反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林秀卿이도 마찬가지 입니다. 不法的으로 入北을 해서 여러가지 우리政府를 「反統一勢力」이라고 罵倒하는가 하면, 또 우리 內部에서의 反對鬪爭을 煽動하는 이런 行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 實定法 違反에 의거해서 司法處理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貴側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不當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內政干涉의 行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貴側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무슨 統一을 위해서 나섰다, 統一을 위한 衷情에서 나섰다 이렇게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統一과 對話를 위해서라면 무슨 모든 法을 어겨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統一과 對話를 내세우면 아무런 行動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治外法權의인 어떤 保護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나는 그것이 도저히 理解가 안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억지지요, 그건 억지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貴側은 진짜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反省을 하고 또 우리가 指向하는 「民主化」 그것을 誤解를 하지 마세요.

우리가 民主化를 指向을 해서 여러가지 推進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혹시 우리 內部를 混亂시킨다든가 뭐 하는 契機로 삼으려 한다든가 우리의 統一努力을 貴側이 우리 社會內部라든가 體制를 어떻게 허물어 보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다하게 되며는 그것은 成功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南北關係를 오히려 더 惡化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成功안됩니다. 그것은 時代錯誤的인 생각이죠. 그런 時代錯誤的인 생각에서 무슨 反政府運動을 하는 學生이나 혹은 一部사람을 相對로 해가지고서 무슨 衝動질이나 하고 煽動이나 해가지고서는 이것은 오히려 對話霧圍氣를 해칠 뿐아니라 또 어떤 面에서는 우리 對話相對方에 대한 愚弄입니다.

그리고 正常的인 對話를 할 생각이 없다하는 것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貴側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하고 싶은것은 이제 態度를 좀 分明히 해야 되겠다. 진짜 우리 內部를 무슨 統一과 對話라는 이와 같은 名分아래 우리 內部를 攪亂하고 우리 體制를 어떻게 흔들어 보겠다는 이와같은 政治工作에 繼續 매달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의 實體를 認定하고 尊重하는 바탕위에서 그야말로 生産的인 對話에 나설 것인가?

만일 앞으로 前者를 擇하게 된다면, 「工作」에 매달린다 하게되면 南北韓關係는 改善되지 못하고 오히려 緊張과 對立만 激化될 것이다.

그래서 白先生말이죠, 南北韓 和解라든가 혹은 南北韓關係 改善을 진정

으로 바랜다면 이제 그런 것은 하지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슨 司法處理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하는 內政干涉의인 이야기는 하지말고 앞으로는 林秀卿이라든가 혹은 文益煥과 같은 相對로 했던 그런 工作을 이제는 完全히 拋棄하고 그야말로 誠實하게 우리 南北 當局間의 對話에 임해주길 바란다 하는것을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問題를 가지고 자꾸만 오늘 이야기를 해봤자, 이젠 아까 사실은 내가 맨 첫 基調發言文에 이런 問題를 가지고 또 옥신각신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實務節次問題만 가지고 言及을 했었어요.

그런데 貴側이 基調發言에서부터 會談外的인 問題를 자꾸만 들고 나와서 우리를 是非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本意아니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렇게 합시다. 實務接觸節次問題에 관해서 서로 討議를 해 가지고 하루빨리, 아까 歡談時間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高位當局者會談을 成事시켜서 南北의 總理들이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가지요.

北(백남준) : 그래서 節次問題 討論합시다. 그런데 討論하는데…….

南(宋漢虎) : 예, 하자고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이젠 하지말고, 이렇게 舌戰을 자꾸만…….

白先生! 나도 그렇지만 우리 白先生은 사실상 오랫동안 南北對話에 從事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또 南北對話에 從事해 왔고…….

北(백남준) : 그럼 同業者구만?

南(宋漢虎) : 아, 그럼 同業者지. 또 어떤 말로 우리 속된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統一꾼」이고 「對話꾼」인데 白先生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하는 意圖가 어디에 있다. 또 어떤 目的을 追求하기 위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것을 내가 잘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렇게 白先生은 白先生대로 또 白先生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며는 아, 宋漢虎라는 사람이 어떻게 對應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을 分明히 아실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을 가지고 서로 자꾸만 舌戰을 交換하다 보면 오히려 會談霧圍氣가 좋지 않으니까 우리 本來 使命에 맞게 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北(백남준) : 예,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南(宋漢虎) : 節次問題討議에 들어가요. 節次問題만 하십시오.

北(백남준) :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宋先生側에서 우리를 매우 誤解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誤解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宋先生 말씀에 이제 잘 理解를 하지를 못하고 계신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南(宋漢虎) : 뭐 誤解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나도 오랫동안 南北對話에 從事하다 보니까 白先生하는 意圖가 무엇인가 내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誤解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實際問題 討議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요.

北(백남준) : 내 왜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問題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같이 마주 앉아서 討論하자. 그것이 우리 對話를 위해서 좋고 統一을 위해서 좋다. 그 趣旨에 대해서 내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南(宋漢虎) : 그 이야기를 하면 또 우리側에서 나도 할 이야기가 있고,
우리 여기에 있는 代表들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北(백남준) : 아니, 우리가 뒷인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지금 誤解하는 것
도 많지 않습니까?

南(宋漢虎) : 아니, 그러면 아까 歡談할 때 이야기하던 것과 完全히 다르
네요?

北(백남준) : 아니, 歡談할 때야 거기 會談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南(宋漢虎) : 나는 아까 崔先生이 이야기를 해서 아주 굉장히 鼓舞를 받
았는데…….

北(최우진) : 좀 들어보세요.

北(백남준) : 지금 貴側은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에 대한 問題가 貴側
內部問題이며 따라서 오늘 會談에서 論議할 性格의 問題가 아니라고 이
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不當한 主張입니다.

우리는 이 問題가 貴側의 內部問題라는 뜻이 아니며 우리의 豫備會談
과 直接 關聯이 있는 重大한 問題이고 이 問題를 응당 오늘 會談에서
論議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認定을 합니다.

우리가 이 問題를 提起하게 되는 趣旨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첫
째로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問題가 統一問題, 民族問題와 關聯되기 때문
입니다.

70 高齡의 文益煥牧師가 平壤을 訪問하고 나어린 林秀卿學生이 第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에 參加한 것은 近 半世紀동안 지속되고 있는 民族分裂
을 끝장내고 나라의 統一問題·民族問題를 解決하려는 崇高한 愛國的 所

行에서 出發한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나 權力을 위해서도 아니고 어느 한쪽의 利益을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統一을 위해서 民族共同의 利益을 위해서 北行길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의 愛國的 所行은 北과 南, 海外的 同胞들로 부터 커다란 共感을 불러 일으키고 동정을 받았습시다.

그러나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은 南朝鮮에 돌아가서 歡迎을 받은 대신에 철쇄에 묶이었고, 評價를 받아야 할 대신에 裁判을 받고 있고 拘束·處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祖國統一을 절절히 바라는 온 民族의 意思에도 배치되고 自主·平和統一·民族大團結의 祖國統一 3大原則에도 違反되는 容納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眞實로 統一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 대한 彈壓을 그만 둘 것을 要求하고 있으며 또 要求할 權利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우기 統一을 위하여 會談하러 나온 우리가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한 일입니다.

둘째로, 그 趣旨에 대해서 말한다면 오늘 會談에서 우리가 이 問題를 말하게 되는 것은 이 問題가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에 대한 問題가 우리의 豫備會談과 密接히 關聯된 問題로 되기 때문입니다.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問題를 옹계 解決하지 않고서는 北과 南은 서로의 誤解와 不信을 가실 수 없고 信義있는 對話를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의 問題로 해서 北南關係가

惡化되고 심지어 貴側의 一方的 措置로 해서 우리의 豫備會談이 中斷되
기까지 했습니다.

더우기 北과 南사이에 和解와 協力, 團合과 統一을 위한 對話가 開催
되고 있는 때에 이들을 拘束·處刑하면 對話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앞에서는 約束을 하고 웃으면서, 뒤에서는 우리를 찾아와서 統
一問題를 協議하고 돌아간 사람들을 彈壓한다면 좋은 感情을 가지고 對
話を 할 수 없고 그런 속에서 對話를 해야 對話가 잘 될 수 없으리
란 것은 自明한 事實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對話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이 問題를 貴
側에 提起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 問題를 말하게 되는것은 셋
째로 貴側이 우리를 걸고 그들을 拘束·處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貴側은 우리가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을 政治工作과 宣傳·煽動에 利
用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난기간 電話通知文들에서 우리를 걸었고 오늘 對
話에서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明白히 強調하지만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은 그 누구의 政治工作 對
象이 아니며 그들이 國論分裂을 위한 그 누구의 政治宣傳에 利用된 것
도 아닙니다.

世上이 다아는 것 처럼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은 分裂의 悲劇을 가
시고 統一을 하루빨리 이룩하려는 崇高한 目的에서 그들 自身の 決心에
따라서 우리 北을 訪問한 것이지 결코 누가 工作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들이 北을 訪問해서 한 일은 統一에 대해서 論議한 것 뿐이며 누가
누구를 利用하고 利用당한 것이 없습니다.

사실이 이리 함에도 不拘하고 貴側이 우리를 걸고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處刑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는 오늘 會談에서 우리가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問題를 提起하게 되는 趣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貴側이 內部問題니 會談外的問題니 하면서 우리가 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이 不當한 것 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나는 貴側이 우리가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問題를 提起하게 되는 立場에 대해서 深思熟考하고 眞心으로 對話를 進展시키는데 關心이 있다면 그들을 遲滯없이 釋放할 것을 다시한번 促求합니다.

南(金三勳) : 말씀 다 끝나셨습니까?

北(백남준) : 아직 말씀 안 끝났는데요.

貴側에서 지금 內部問題다 하는데 내쫓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北南關係를 더 惡化시키고 對決을 激化시키고 對話와 統一問題 解決에 障礙를 造成하는 것으로 되며, 어떻게 그게 內部問題겠는가.

첫째로 우리 봅시다. 內部問題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한 다음에 宋先生님이 또 제 얘기 하는 것이 또 差異가 나머지는 또 말씀을 하십시오, 하는데…….

南(宋漢虎) : 뭐 그만하시지요,

내가, 뭘 이야기 하시는지 내가 다 아는데 뭐. 그러니까 그만하고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갑시다.

北(백남준) : 보십시오 宋先生! 아니 이제 들어보시라요. 이것이 內部問題라고 할 것 같으면…….

南(宋漢虎) : 아니, 정말 내말 좀 들어 보시라우요. (웃음)

北(백남준) : 아니 내 아직 이 얘기 안끝냈으니까, 내가 이 얘기 안끝냈으니까 말씀해 보시요.

우리가 오늘 이거 實務問題 討論에서 오늘이야 무슨 난 그런데 實務節次問題 뭐 宋先生이 내놓은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내놓은 것이나 좀 合意를 보겠는지.

그런데 좌우간 일차 우리도 實務作業에 들어갑시다.

南(宋漢虎) : 예,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北(백남준) : 그런데 왜 內部問題가 아닌가?

이 文益煥問題,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에 대한 問題는 이것이 民族의 統一과 關聯된 거예요. 民族的 問題, 民族의 統一과 關聯된 問題입니다.

統一問題가, 統一問題가 이게 어느 特定한 人士나 特定한 階層이나 特定한 政黨에 絶대로 이게 政略적으로 利用되어서 안되는 問題이고, 명실공히 民族問題는 이걸 民族的인 問題다. 統一問題는 民族的인 問題다. 이거는 貴側에서도 금년 年頭記者會見에서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南(宋漢虎) : 그러니까 民族的인 問題니까 우리 國民들로부터 權限을, 主權을 委任받은 政府當局間에 解決하면 되는 거예요.

北(백남준) : 그런데 어째서 이 問題와 關聯해서 宋先生 貴側에서만…….

南(宋漢虎) : 그런데 참 답답하네 하여간…….

北(백남준) :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統一問題인데, 統一問題인데 어떻게 돼서 우리도 統一이란 主體의 한 成員인데. 宋先生! 왜 말씀할 수,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까?

또 이게 어떻게 貴側의 內部問題인가? 統一問題란 貴側問題가 아닙니

다. 貴側의 말하자면 獨占物이 아니라는 것 認定하지요?

이건 우리 모두의 공동의 課業입니다. 그러니까 이 統一問題와 關聯되는 問題를 우리가 말하는데 이게 內部問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봅시다. 이제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貴側에서도 우리를 걸고 政治工作이요…….

南(金三勳) : 충분히 알아 들었으니까, 저희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말씀은 충분히 하신 것 같으니까.

北(백남준) : 가만히 제 이야기 아직 안끝났어요. 제 이야기 아직 안끝났어요.

南(金三勳) : 글썄, 이야기를 充分히 하신 것 같으니까. 充分히 말씀하신 것 알아 들었으니까, 저희도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北(백남준) : 아직 이야기가 안끝났어요.

南(金保鉉) : 會談에서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해야지요.

南(宋漢虎) : 저 白先生 말씀듣고, 자 가만 있어 보세요. 이야기 하세요.

北(백남준) : 우리를 걸고, 우리를 걸고 그들을 處刑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인데, 뭐 무슨 이른바 貴側에서는 『우리法을 가지고 處刑하는데 그거 너 無關한거다, 關係하지 말라』하는데, 統一問題, 民族問題, 民族共同의 무슨 말인가 하면 共同에게 妥當性을 가진 法이, 어느 일방의 法이 宋先生! 그게 全體 全民族에게 妥當性이 있으며 正義性이 있다고 봅니까?

統一問題와 關聯된 法은 우리가 도장을 찍었다면 7.4 南北共同聲明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貴側의 法을 가지고 統一問題를 다루겠는가?

그런데 貴側에서는 이른바, 무슨 國家保安法이다 해서 우리를 무슨 民族 反國家團體요, 敵이요, 이렇게 하고선 義로운 일을 한 사람들을 갖다

가서 무슨 우리를 걸어서 우리가 무슨 工作했다, 우리가 煽動해서 平壤에 왔다 갔다 이거 이렇게 한,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고도 貴側 內部問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우리를 걸고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必要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셋째로 봅시다. 이 對話, 對話가 우리 統一을 위한 對話고 民族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이런 對話인데, 이거 이런 일이 있으며는 이제 對決이 더 高潮되고, 緊張이 더 高潮되고 이 對話앞에 이것이 좋은 霧圍氣가 서지 않고 障礙로 되는 것만 思想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게요, 또 同時에 宋先生하고 나하고 마주 앉았는데, 우리는 相互 對話相對方이 아닙니까?

對話相對方인데 우리하고 마주 앉았던, 우리하고 問題를 討論하고 만났던 사람을, 아니 貴側에서 處刑하려는 것은 실지는 對話 一方인 우리를 反對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問題에 대해서 말을 못하겠습니까? 응당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貴側 內部問題만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봅시다. 우리가 統一을 하려는데 있어서 우리 南北이 公認하고 世上에, 世上이 認定하는 7.4 南北共同聲明이 있습니다.

이 7.4 南北共同聲明에서 主張하는게 뭐냐. 統一問題는 民族的인 大團結을 이룩해서 統一을 實現해야 된다. 그런데 統一을 위하고 統一意志를 가진 사람은 다…….

그 統一論議에 參加하게 하고 統一을 위해서 自己熱情을 다 바치게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을 處刑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宋先生님 누구

하고 團結하고 누구하고 統一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어떻게 자꾸 貴側의 內部問題다 이런 말하지 말라, 이런 論理가 되겠는가? 그럼 나도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하겠오.

지금 솔직히 말하면 世界가 이들의 問題를 놓고 憂慮하고 있고, 사실 糾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血肉으로서 이거 보고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습니까? 만약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統一을 위해 좋은 일을 한거 問題視하는데, 그건 한쪽이 되는게고, 같이 共謀者가 돼야 되겠는데 統一에 좋은 사람 좋은일 한사람 義로운 일을 한것, 그렇게 問題視할 수가 없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宋先生 보시요, 내 한번 좀 오래전의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이제 좀 우리側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北(백남준) : 오래전의 얘기를 하겠는데…….

南(宋漢虎) : 오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 金代表가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좀 들어 보세요.

南(金三勳) : 조금씩 나눠가지고 서로의 立場을 얘기합시다. 우리가 여기 和解하고, 對話하러 온 것이니까.

南(宋漢虎) :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北(백남준) : 가만히 계세요, 내 얘기 안 끝났습니다.

가만히 金先生! 내 얘기 안 끝났어요.

南(金三勳) : 글썽 오래전 얘기라고 그러시니까, 오래전 얘기가 좀 있다가 들어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北(백남준) : 必要한 얘기니까.

北(최우진) : 關聯된 얘기를 하신다 그겁니다.

南(金保鉉) : 發言을 좀 나눠서 해야지 貴側에서만 자꾸 그렇게 길게 하시니 우리가 發言할 機會가 없잖습니까?

北(백남준) : 아니, 그러니까 貴側에서 時間을 가졌을 적에 얘기를 하면 되지 宋先生님! 이거 會談, 知性人들의 政治人이 알아하는 會談인데…….

北(최우진) : 오늘 이야기 始作해서 점심이 좀 늦어도 充分히 이야기하면 될거 아닙니까?

南(宋漢虎) : 이제 白先生이 「7.4 共同聲明」 자꾸만 얘기하는데…….

北(백남준) : 아 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렇게 하면 되겠오? 내가 좀 한가지 얘기 좀 합시다.

40年前 일이에요. 40年前 일인데 夢陽先生 아시지요? 呂運亨先生, 呂運亨先生이 40年前에 共和國 北半部를 訪問했다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 美軍政長官 「하지」가 呂運亨先生을 불러다가 問責을 했는데, 너 왜 報告없이 갔느냐, 너 왜 承認없이 갔느냐 그러니까 呂運亨先生이 하는말이 내가 내집에서 옷간에 간들 아랫간에 간들 네가 무슨 相關이 있느냐 그렇게 면박을 줘서, 「하지」가 말문이 막혀서 찢찢 매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 對話 相對方인 貴側이 美國사람도 아니고 「하지」도 아는데, 어째서 제나라 제땅에 왔다 갔다 한사람을 오간 사람을 가지고서 이걸 자꾸 問題를 세우자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대범하게 大局的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民族을 위해서 統一을 위해 좋은 일을 한사람들을 讚揚은 못해줘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宋先生님 그러니까 우리가 提起한 問題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런 대답을 주시요.

南(宋漢虎) : 좋은 대답을 줄게요. 우리 金代表가 對答을 해주시죠.

南(金三勳) : 오늘 올때 期待도 그랬고, 또 우리가 환담을 하면서도 참 날씨도 좋고 南北이 다 豐年이 들어서 좋은 結實을 거둘거다 해서 期待를 참 많이 했는데, 白首席代表께서 첫 發言文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지난번 두번 會談에서 그거 하나만 놓고 얘기함으로써 정말 6千萬 우리 國民들이 念願하고 있는 本會談의 進展을 위해서는 하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이 참 부끄러움을 느끼게 했었고…….

또 팀스피리트訓練을 그때 두번째 會談에서 내가 分明히 왜 팀스피리트訓練을 하게 됐느냐 그 性格이 무어나, 왜 해야 하는가 또 南北對話하고는 無關하다는 理由 또 貴側에서도 朝·蘇軍事訓練도 하고있고 軍事訓練을 하고 있다는 이런 內容들을 充分히 說明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 部分에 대해서는 誤解가 없을 테니까 舉論이 없는줄 알았는데 오늘도 보니까 또 그 말씀을 하시는걸 보니 記憶이 잘 안나신다면 그때 말씀했던 會議記錄에도 있고 할테니까 읽어보면 될꺼고 오늘 더이상 그 問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외에 또 보니까 秘密裡에 不法入北했던 犯法者問題를 놓고 아까 貴側 首席代表께서 우리 問題라고 分明히 얘기하시데요. 우리 問題를 우리 法에 따라 處理하는 것을 놓고 그거 拘束하면 안된다, 法에 따라 處理하면 안된다 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중에 상당히 矛盾이고 自家撞着的인 것이 있었어요. 또 分明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번째로 民族統一協商會議 얘기를 하셨는데…….

北(백남준) : 그쪽 法이 우리한테 適用됩니까?

南(金三勳) : 會談 본래 外的, 들어보세요. (北側 代表의 發言阻止에 대해)

北(유성철) : 아니 가만히 이제 誤解 안했다는게 뭐예요? 아니 이제 誤解안했다고 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먼저 2次會談때 誤解안했는데 왜 提起하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팀스피리트問題였던가요?

南(金保鉉) : 相對方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꼬리를 잡지 맙시다.

南(金三勳) : 充分히 理解를 하셨을 텐데 왜 또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어요. 誤解가 아니라...

北(유성철) : 무슨 理解를 하셨다는게요?

南(金三勳) : 그래서 이 民族統一協商會議 세가지를 주로 얘기하시면서 豫備會談을 成功的으로 빨리 마쳐가지고 總理會談으로 이어지고 나아가서 頂上會談으로 까지 이어져 가지고 南北間에 쌓여있는 모든 不信과 貴側이 말하는 政治的·軍事的 對決問題를 包含해서 이런 것들을 解決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民間間에 각종 交流와 協力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成事시키기 위한 會談, 생각보다는 다른 것들을 舉論하시더라 우선 상당히 遺憾스러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팀스피리트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미 지난 번에 충분히 說明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舉論을 省略하고 秘密不法入北한 사람들을 犯法者로서의 우리法에 따른 處理問題하고 關聯해서 내가 생각하는 見解를 한번 말씀을 드리지요.

우리 南北韓間에 있어서의 모든 문제 解決에 7.4 共同聲明精神에서 부터 도 그렇고 우리가 提示한 「7.7 宣言」도 그렇고 또 貴側이 提示하고 있는

高麗聯邦制 統一方案에서도 相互實體를 認定한다는 前提에서부터 出發을 하는 겁니다. 두개가 있는 것을 分明히…….

그 實體를 認定을 하며는 서로의 政府의 權威와 權能도 認定을 하고 尊重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實體를 認定하는 바탕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어나, 40餘年間 分斷으로 인해서 쌓이고 쌓인 不信을 解消하는 問題예요. 그런데 文益煥이다 林秀卿이다 이 사람들 問題를 한번 놓고 보십시다. 아까 貴側을 걸어서 자꾸 우리法에 따라서 處理한다 그러는데 서울에 있는 큰집에서 말이에요 釜山에 있는 작은집에 애를 하나 放學때 놀러 보내더라도 이거 事전에 언제가고 무슨 汽車를 타고 가든지 뭐 飛行機를 타고 가든지 自動車로 가든지 가는 곳도 서로 알려주고 거기서도 맞을 준비도 하고 우리도 보내는 큰집에서도 알고있고 이렇게 해서 다 다녀오는 겁니다. 그런데 文益煥씨나 林秀卿이나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7.4 共同聲明에서도 그렇고 「7.7 宣言」에서 특히 人的往來와 民間次元에서의 接觸과 交流協力을 強化해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宣言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意味하느냐 마음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게 아니라 法治國家로서 政府의 權威와 權能을 가진 우리法에 따른 所定の 節次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南北韓間에 不信과 對決이 있어요. 現狀況下에서 우리 國民들이 北을 訪問하기 위해서는 當局間에 事전에 協議와 周旋, 支援과 保障이 先行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文益煥·林秀卿 이런 사람들은 事전에 우리政府에 한마디 말도없이 갔고 그쪽에서도 그 사람들 오는걸 알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貴側하고 相關없다 그랬는데 文益煥牧師가 平壤을 갈 때 北京에서부터 特別機를 내서 모셔갔어요.

자 그럼 우리政府가 政府에 事前에 通報를 하고 節次를 거쳐서 갔다 하면, 人的往來 交流를 위해서 日本에 있는 李大京牧師 宗教人이 갔다 왔어요. 事前에 우리한테 申請을 해가지고 許可해서 아무問題 삼지 않습니다. 鄭周永會長이 北韓을 다녀왔어요. 貴側地域을…….

政府에 事前에 申請을 해가지고 우리의 節次를 거쳐서 서로가 다 알고 서울 큰집에서 釜山 작은집 다녀오는거 다 얘기했기 때문에 法的으로 아무問題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文益煥·林秀卿 이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무슨 行動을 했느냐 하는 것은 次後의 問題입니다. 事前에 政府에서 必要로 하는 事前節次와 許可를 거치지 않고 갔다는 것 自體가 우리의 實定法을 違反했다. 아까 民主人士라는 表現을 하셨는데 불을 놓은 사람은 放火犯이요, 도둑질을 한 사람은 절도범이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法에, 있는 法을 違反한, 實定法을 違反한 犯法者들이예요.

이 犯法者들은 民主人士가 아닙니다. 統一論議를 아까 말씀하셨어요, 統一論議를 한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統一論議 우리 自由民主社會이기 때문에 우리 社會에는 複數意見이 있습니다. 少數意見이…….

論議는 自由롭게 할 수 있어요. 意思表示도 自由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와같은 意思表現의 自由와 思考의 自由가 어떤 行動으로 나타나 가지고 政府와 國家를, 體制를 維持해 나가기 위한 法을 違反했을 때는 우리法에 따라서 處斷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法에 따라서 處斷되는 겁니다. 그걸 分明히 理解하셔야 돼요.

李大京牧師, 鄭周永會長 우리 일체 問題삼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앞으로도 그럴꺼예요. 그래서 貴側에도 聖體大會에 20名 오십시요. 또 앞으로 있을 한강연등재에도 30名 보내 주십시요. 앞으로 貴側에서 하는 行事

에서도 우리가 判斷해서 南北交流과 協力과 人的往來에 도움이 되고 우리 政府次元에서의 節次와 法을 遵守해서 거쳤을 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들, 法을 分明히 違反한 犯法者들이지 民主人士가 아니다 하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립니다.

또 貴側은 아까 北에 와서 이사람들이 어느쪽을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 한 것도 없고 貴側과 關聯이 없다고 그랬는데 몇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文益煥牧師가 北京을 거쳐서 들어갈 때 特別機까지 提供해 가지고 데려간게 그게 政治工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쪽에서 가는사람 앞으로 南北人的往來와 交流協力에 의해서 北京으로 해서 가면 1,000名이고 10,000名이고 다 特別機 내 줄 것입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또 文益煥이란 아무런 權限도 없고 資格도 없고 代表도 없는 犯法者가 가 가지고 9個項이란 合意事項을 發表를 했어요. 그쪽에서는 祖國平和統一委員會, 여기에도 代表가 나와 계시지마는 그게 民間組織인지 政府組織인지 性格에 대해서도 正確하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자, 이와같은 것들이 그러면 貴側은 우리가 「7.7」宣言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統一方案에서도 그렇고 當局者會談, 責任과 權限을 가진 當局間에 會談을 빨리 成事시켜 가지고 統一問題를 當局間에 協議와 協商으로서 解決하는데는 外面을 하고, 아무런 資格도 없고 權限도 없는 犯法者 한사람을 불러다 놓고 9個項의 合意事項을 發表해 가지고 統一論議를 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 잘못 됐느냐, 우리는 거기에 關聯된 바가 없다. 이 論理가 건강부회요, 억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序頭에서도 分明한 것을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지마는 南北問題를 풀어가

는데 있어 우리가 根本적으로 생각해야 할 前提가 몇가지 있어요. 相互 實體를 認定하고 尊重하고 그렇기 때문에 內部問題는 內部로서 일단 내 버려두고 어떻게 하면 責任과 權限을 가진 當局이 모여가지고 이 問題를 誠心誠意껏 誠實한 姿勢로 解決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제일 重要합니다.

이 文益煥·林秀卿이가 秘密裡에 貴側을 다녀옴으로써 發生한 問題가 南北韓間에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問題가 나는 不信이라고 생각합니다.

40餘年間 3년에 걸친 同族相殘의 戰爭, 이런걸 거쳐 오면서 對決과 敵對關係로 對決되어온 現實 與件下에서 어떻게 하며는 相對方이 하는 行動을 그래도 좀 믿어줄 수 있는 것이냐 였는데 文益煥·林秀卿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秘密裡에 政府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 가지고 南北關係에 물꼬가 좀 트일려는 狀況에 不信을 膨湃시켰어요. 不信을 膨湃시킨 理由를 한번 證明들을 대 볼까요?

아까 白首席代表께서 우리 國民들도 支持했고 海外反應도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文益煥씨가 訪北했을 때 우리 國民의 81%가 잘못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民主主義 社會이기 때문에 100%는 아니예요. 다수결의 原則이 適用되는 社會예요. 이 80%, 90%가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우리 言論들이 그 以後에 어떻게 評價했는지 그 題目들을 한번 읽어 볼까요. 「文牧師를 證言臺에」, 「그의 平壤行은 엄청나, 糾明되야」, 「北의 장난에 대한 우리의 對應」, 「文氏의 連北路線」등등 政府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國民, 言論들이 千篇一律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나갈 南北對話關係를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不信을 膨

湃하게 만들었다. 이것 참 가슴아픈 일이에요.

北(김영철) : 發言이 끝났습니까?

南(金三勳) : 아직 안끝났어요. 좀 더 들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統一論議는 어디에서 出發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深刻하게 認識을 해야 합니다.

이 文益煥·林秀卿事件 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統一論議, 統一基盤與件 造成을 위한 霧圍氣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法에 따라서 法을 잘못된 사람들은 우리 法에 따라 處斷하도록 내버려두고, 統一問題는 權限과 責任을 가진 우리 當局間에서 誠實한 姿勢로 對話에 임해 가지고 解決해 나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問題를 더以上 舉論하는 것보다 이 豫備會談을 하루속히 成事시켜 가지고 總理會談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交流와 協力の 擴大를 위한 어떤 틀도 만들고 自由旅行保障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 南北間에 빨리 이루어지면 더이상 그런 問題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總理會談도 成事시키고 나아가 頂上會談도 成事시켜 가지고 統一問題를 하루속히 解決하는 場으로 나아갈 것을 強力히 이야기합니다.

北(김영철) : 三勳先生 말씀도 들었고, 그 다음에 …….(쌍방소란)

南(宋漢虎) : 들어보세요. 잠깐 白先生, 團長先生하고 말하려 그래요. 이렇게 합시다.

北(김영철) : 내 말합시다. 宋先生! 한마디만 물어 보겠어요.

南(宋漢虎) : 가만계세요. 내가 이야기 할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提議하는 거요. 首席代表 立場에서 提議하는거요! 白先生, 우리 지금 두時間이나 되었는데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갑시다. 이제 이것 가지고 舌戰 交換하지 말고…….

北(백남준) :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깐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宋先生!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를 處刑하지 않고 내놓겠다는 걸로 그렇게 認定해도 되겠습니까?

南(宋漢虎) : 그렇게 너무 一方的이고 왜 白先生 獨斷的이고 一方的인, 아주 教條主義的인 發言을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實務節次問題에 들어가자고 그래서…….

北(백남준) : 들어가는데…….

北(김영철) : 한마디 합시다.(장내소란)

南(宋漢虎) : 가만히 계세요! 내가 首席代表하고 이야기 하나니까…….

北(김영철) : 宋先生이 지금 이야기 하는데 文益煥牧師問題, 林秀卿學生問題가 그쪽 法에 따라서 處理되는 그런 內部問題, 內政問題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南(宋漢虎) : 자, 實務問題로 들어갑시다. 우리…….

北(김영철) : 몇가지만 이야기 하겠어요. 꼭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해서 또 그쪽에서 하는 일이라 해서 이게 우리 內部問題요 內政問題요 우리 法에 관한 問題요 꼭 이렇게 되는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北과 南으로 갈라져 있는 情勢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文益煥牧師一行,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問題가 결코 그쪽 內部問題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일 問題點이 있는데 무엇인가? 지금 그쪽에서 우리를 만나서 統一問題를 論議하고간 그들을 우리와 關係속에 있는 法, 다른 法이 아니라 우리와 關係속에 있는 法, 三勳先生 똑바로 들으시오. 우리와 關係속에 있는 法에 걸어서 處刑하는데 있습니다. 이걸 뭐인가 하니깐, 척보면 퍼뜩보며는 이거 南에서 자기 權能에 속하는 사람들을 問題視하는 것 같고 犯罪視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벌써 對話一方인 우리를 問題視 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런 意味에서 벌써 文益煥牧師問題, 林秀卿學生問題가 그쪽 內部問題만 아니라, 北南關係 問題로 設定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南(金三勳) : 그거는 貴側問題하고 相關이 아니라는 것을 分明히 말씀드렸어요.

北(김영철) : 아니 들어보고 北南關係問題로 設定된 以上에는 왜 北南關係一方인, 宋先生님 들어보시요. (짱방소란)

南(宋漢虎) : 節次問題하고 關聯없는 이야기는 그만두세요.

北(김영철) : 한마디만 더 들어보세요.

南(宋漢虎) : 그러면 나도 할 이야기가 있어요.

北(김영철) : 할 이야기 있으면 하세요. 나도 그쪽에서 처럼 工作이요 이런 말씀 안합니다. 내가 왜 우리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들어 보세요.

또 다른 한 側面에서 우리 團長께서 充分히 말씀 드렸어요. 文益煥牧師, 文奎鉉神父 또 以北을 訪問한 모든 사람들의 問題가 무언가? 統一問題입니다. 그런데 統一問題를 다른 그런 사람들을 處刑하기 때문에 꼭 그쪽 內部問題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혼기에 들어선 文益煥牧師가 무슨 觀光旅行을 하러 北을 왔습니까? 아닙니다. 또 林秀卿學生이 어떤 즉흥적인 感情이나 感傷主義에 사로잡혀서 北을 訪問했습니까? 아닙니다.

白頭山도 내 땅이다, 漢拏山도 내 땅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한덩어리로 묶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이런 생각에서 北을 訪問했던 것입니다.

또 날로 굳어지는 障壁을 허물어 보자, 이 땅은 이 民族은 둘로 갈라질 수 없는 하나의 民族이다 해서 林秀卿學生이 以北을 訪問했습니다.

말을 해도 統一을 위한 말을 했고 눈물을 흘려도 統一을 위한 눈물을 흘리고…….

南(金三勳) : 節次만 거쳐서 갔다면…….

北(김영철) : 내말 들어봐요, 節次問題 내 말할 것 있어요. 그쪽 當局에서 承認안했으니까 그렇게 되었지. 統一問題는 아까 우리 團長께서 이야기했습니다. 北과 南이 어느 一方의 獨占物이 아니다. 이걸 온 民族의 智慧와 힘을 모아서 풀어야 할 問題이다. 그쪽 當局者도 금년 1月 27日 年頭記者會見에서 말했어요. 統一은 汎民族的인 問題다. 어느 當局, 特定黨, 特定人, 特定階層이 政略적으로 利用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統一問題는 全 民族이 議論할 수 있고 응당하다는 것을 認定하는 것 같은데 하물며 한 民族의 成員으로서 統一問題가 蹂躪당하는데 어째서 말을 못하게 하는가? 問題있습니까?

아, 우리하고 얼굴색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도 말을 하는데 한 民族이 왜 말을 못하게 하는가?

그쪽 內部問題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南(金三勳) : 理解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北(백남준) : 성급하시구만.

北(김영철) :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좀 봅시다. 우리가 왜 文益煥·文奎鉉·林秀卿學生問題가 그쪽 內部問題가 아니라고 하는가. 北과 南이 合意한 7.4 共同聲明 3大原則이 蹂躪당하는 것과 같다. 그분들을 拘束·處刑하면, 털어놓고 말해서 北과 南이 힘을 합쳐서 自主적으로 統一問題를 다

투자 하는 自主의 原則을 여기는 것이고 또 北과 南이 이렇게 싸움을 하는것이 아니라 戰爭의 方法이 아닌 對話의 方法으로 平和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平和의 原則을 여기는 것으로 됩니다. 맞지요? 또, 아까 團長先生이 明白히 했는데 北과 南이 思想을 덮어놓고, 制度도 덮어놓고 理念도 덮어놓고 民族大團結原則에서 統一하자는 이 大團結의 原則을 여기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3大原則에 基礎한 7.4共同聲明 次元에서 말입니다. 이걸 우리民族이 우리가 내놓고 그쪽에서 合意해서 만들어 놓은 有一無二한 統一原則이다.

이 原則이 지금 蹂躪당하는데 어째서 우리가 말 못하겠는가?

南(金三勳): 하나 물어 보십시오.

北(김영철):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三勳先生이 자꾸 그러십니까? 對話에는 온당한 態度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지요. 이런 意味에서 그쪽 內部問題만이 아니고 이걸 우리와 關係되는 問題다. 그래서 文奎鉉神父·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의 拘束措置를 撤回하고 손에 놓은 족쇄는 풀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이걸 우리만의 要求가 아니라 온 民族의 要求이고 世界良心의 呼訴입니다. 이 要求, 이 呼訴를 저버리면 솔직히 말해서 온 民族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世界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統一된 다음에는 이 問題를 두고두고 우리 後代들이 무엇이 라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宋先生! 대답을 해 주세요. 統一이란 두글자는 우리글로 쓰면 똑같은 두글자입니다. 「統一」, 말해도 統一이란 우리 말에는 뜻이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統一이란 問題를 가지고 統一對話를한 어떤 사람

은 問題視하고 어떤 사람은 일 없습니다. 그러면 當局에서 말하는 統一에는 愛國만 있고 民衆이 말하는 統一에는 반역만 있는가? 深刻한 問題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이 물음에 우리 朝鮮民族으로서 良心있게 대답한다면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물음을 提起하겠습니다. 그쪽 法에 따라 處理하는데 그러면 林秀卿學生이나 文益煥牧師를 處刑하는 基本法이 우리를 反國家團體로, 反國家團體 構成員으로 適用하는 그런 法입니다. 宋先生! 이 會談卓앞에 마주앉은 우리가 反國家團體 構成員인가, 그렇게 보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금년도에 많은 말씀을 했는데 民族共同體 成員이다, 또 무슨 同伴者다 그렇게 보시는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 問題에 대한 대답을 하고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가는데 다른 異意가 없습니다.

南(金保鉉): 質問해 왔으니까 제가 대답할까요?

南(宋漢虎): 그렇게 하세요.

南(金保鉉): 모처럼 發言機會를 얻었습니다.

北(김영철): 내가 먼저 물었는데 대답을 해야 지 되지 않을까요?

南(金保鉉): 예 대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야기 하다가 중간에 대답 안한 것이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십시오. 貴側 首席代表先生께서도 얘기했고 우리 金代表께서도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統一問題 全 民族의 關心事입니다.

그러나 南北이 分斷된지 半世紀에 가까운 이런 狀況속에서 不信과 對立이 深化된 狀況속에서도 무엇보다도 어떻게 누가 나서서 統一問題를 어떠한 方法으로 解決하는가 하는 節次問題와 또 그 接近方式이 相當히 重

要합니다. 貴側에서는 무조건 文益煥牧師가 가서 統一의, 障壁을 혔었다. 林秀卿양이 가서 統一의 꽃으로 되었다 이런 式으로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두꺼운 分斷의 障壁이 일개 個人이 가서 무슨 資格으로 무슨 代表性을 가지고 가서 설사 어떤 合意를 이루었다고 해서 그 무슨 效力이 있겠습니까?

個人이 가서 한 것을 全部 愛國所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보건대 愛國所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 新聞과 輿論과 國民의 激奮이 일어났고 統一論議가 얼마나 混亂스러워 졌으며 또 이 當局間 會談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몇달이나 늦춰져서 일곱달만에 만나는 混亂스러운 그런 狀況이 造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貴側에서 이것이 우리 內部問題가 아니라 貴側과도 聯關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聯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內部問題인 同時에 貴側이 聯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聯關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問題입니다.

貴側은 林秀卿嬢, 文益煥牧師, 심지어는 徐敬元議員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貴側이 온갖 手段을 다 動員해서 北側으로 誘引했다는 것이 우리 司法判決結果 明白히 드러났습니다. 原因은 貴側에서 提供을 해놓고 그것이 北과 南에 關係된 問題이기 때문에 즉 統一問題이기 때문에 貴側에서 舉論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 問題가…….

北(백남준) : 아니, 근데 이쪽에서 묻는 걸 대답하겠다고 하면서 金先生 또 얘기를 할랍니까?

南(金保鉉) : 아니 하겠습니까. 대답하겠습니다.

北(백남준) : 얘기 할랍니까?

南(金保鉉) : 아니 얘기를 하겠어요.

北(백남준) : 거, 複雜해 지는구만 …….

南(金保鉉) : 얘기를 하겠습니다.

北(백남준) : 나는 實務節次問題 討議하자고 그래서 여기 다 내놨어요. 내
놨는데 繼續 얘기 하겠습니까?

南(金保鉉) : 그럼 대답할게요.

北(백남준) : 예, 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反國家 團體 成員인가 敵인가 말
해 보시오.

南(金保鉉) : 얘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

北(백남준) : 좋게 會議를 해야지. 자꾸 그렇게 하고 複雜해 되겠소?

南(金保鉉) : 關係가, 어떻게 된 關係가 北側이 誘引한 關係다 하는 것을
첫째 指摘을 하고 貴側의 質問에 대답하겠습니다.

北(최우진) : 뭐, 그거 다 解明됐는데.

南(金保鉉) : 우리 司法 判決文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北(최성익) : 反國家團體 構成員이라고 現在 現순간에 생각하고 있는가 대
답하라고 했는데 …….

北(백남준) : 대답하는줄 알고 있는데 …….

南(金保鉉) : 조용히 하세요. 대답하겠어요, 대답하겠습니다.

北(최우진) : 우리가 文益煥牧師나 林秀卿學生이 罪가 있는 사람이면 南朝
鮮에 넘겨 보내지도 않아요.

南(宋漢虎) :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라고 …….

北(최성익) : 安企部 搜查에 유원호를 間諜이라 하더니 間諜이 아니라고 한
다면서요? 그거는 뭘 말해 주는가?

南(金保鉉) : 相對方 發言을 하는데 首席代表先生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해도 됩니까? 나도 發言할 機會를 모처럼 얻었는데 對答를 하겠다는 거예요.

貴側은 文氏하고 林氏問題에 대해서 彈壓을 中止하고 處刑을 中止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分明히 語弊가 있는 얘기입니다. 彈壓이 아니고 適法節次에 의해서 犯法者를 다스린 것이고…….

北(백남준) : 공연한 말씀을 하시는 구만요. 彈壓한다는 말은 안했는데, 거 어떻게 자꾸 그렇게 問題를 겁니다? 여기 누가 彈壓이란 말 했어요?

南(金保鉉) : 彈壓하는 措置를 즉각 中斷하라고 基調演說文에 나와 있습니다.

北(김영철) : 彈壓措置를 撤回하라.

北(백남준) : 물어본 것만 간단간단 합시다. 물어본 것만…….

北(김영철) : 反國家團體인가 反國家團體構成成員인가. 우리 물음에만 正確히 對答하세요.

南(金保鉉) : 이것은 두가지 答辯이 必要합니다.

國家保安法은 우리 內部的 問題이고 우리의 自由民主主義 體制를 保存하기 위한 法이 趣旨입니다. 그래서 우리 體制에 도전해서 反國家 活動을 벌이는 者에 대해선 嚴格히 이 法을 適用해서 處理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世界 어느 나라에서나 共通된 것일 겁니다. 自己體制를 도전하는데 대해서 國家保安法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거죠.

北(김영철) : 우리 다섯명이 反國家 團體의 構成員인가 아닌가 하는 것만 答해 주시오.

南(金保鉉) : 내가 答辯하겠습니다.

貴側이 構成員이나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되물어 볼 수 밖에 없습
니다. 貴側의 刑法에 의하면 원수의 편으로 넘어가는 者에 대해선 嚴格
히 다스리고 處刑하고 財産을 沒收한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원수의 편이
누굽니까? 우리 南쪽으로 넘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
습니다. 반문하건데 만약에 貴側에서 말이죠 우리側에 貴側을 反對하는 어
떤 人士가 우리쪽으로 넘어와서 우리側에 同調하는 發言을 하고 넘어 갔
다고 假定을 합시다. 貴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貴側은 우리 國家保安
法の 基本精神은 反國家活動을 規制한다…….

北(백남준) : 아, 同調를 하고 發言한 놈이야 잡아 가둬야지 뭐 그거 안
가워서 되겠습니까?

南(金保鉉) :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實定法을 어기고 갔다 이
거예요.

北(최우진) : 統一을 위해서 갔다 왔다 하며는 우리는 꽃다발로 歡呼할 것
입니다.

北(백남준) : 統一을 위해 갔다 온건데 그게 도둑놈이요?

北(최우진) : 文益煥牧師나 林秀卿學生은 統一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南(金保鉉) : 아, 생각을 해보십시오.

南北分斷 現實에서 當局者끼리 이렇게 責任있는 當局者끼리 모여 앉아
서도 하나도 實務問題에 들어가지 못하고 舌戰만 繼續하고 있는데 아무
資格도 없는 代表가 가서 뭘 統一을 한다는 겁니까?

南(宋漢虎) : 내가 答辯을 해 드릴게. 뭐 자꾸만 反國家團體 어찌고 어찌
고 하는 答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答辯을 해 드리죠. 貴側에
繼續 지난 40餘年間 繼續 追求했던 南朝鮮革命戰略과 暴力革命路線에 대

해서 拋棄할 容의가 있습니까?

北(김영철) :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해 주겠습니다.

南(宋漢虎) : 아, 가만히 계세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 式으로 자주 刺戟的인 發言을 하면 나도 할 이야기를 또 해야 되니까.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貴側이 先革命 後統一이라는 立場을 가지고 그동안 즉 南朝鮮 革命戰略과 暴力革命路線을 追求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가지고 뭐 貴側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면 祖國統一이요 革命을 完遂하기 위해선 말이지 貴側地域에서의 무슨 社會主義革命力量을 強化하고 또 社會主義建設 다그치고 南쪽에서 무슨 革命力量 強化하고 南朝鮮 解放해야 한다. 뭐 그런 얘기 쪽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革命의 性格이라는게 바로 民族解放이요, 人民民主主義 革命 課業을 完遂하겠다. 이런 式으로 이야길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解放의 對象으로 規定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實現할 方法은 平和的인 方法은 도저히 안된다. 이걸 뭐 暴力革命 方法밖에 없다. 貴側은 繼續 그렇게 主張하고 있잖아요? 그런 狀況에서…….

北(백남준) : 거기에 두마디만 간단히……

南(宋漢虎) : 가만있어요! 그런 狀況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安全을 지키고 國民의 生存과 自由를 確保하기 위한 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대해서 어찌구 저찌구 是非를 하고 말이야. 答辯을 해달라는 등 먼저 거기에 대해 여러분 答辯을 좀 하세요.

北(김영철) : 아니 그게 내가 아까 質問한 內容의 答辯이요?

南(宋漢虎) : 그게 答辯이에요.

北(백남준) : 내가 얘기를 하죠. 우린 아직 그 答辯을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래서 우리 實務節次問題討論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그전에 나는 宋先生님 그쪽에서 問題를 提起한 外에 할 말은 많습시다. 우리가 할 말은 많고 그런데 그쪽에서 提起된 問題만 내가 간단간단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南(宋漢虎) : 實務節次問題 들어가죠.

北(백남준) : 아니, 나는 새로운 問題는 말하지 않겠고 同時에 또 展開하지도 않겠고 우리 이 會談을 아껴서 그래서 그러는데 내 한마디만.

南(宋漢虎) : 2時間 10分이나 됐는데…….

北(백남준) : 宋先生님! 아까 代表性있는 當局끼리 모든 問題를 協議하고 討論해야지 무엇때문에 代表權도 없고 責任性도 없고 權能도 없는 그런 在野團體들 하고 「너희들이 뭐 對話니, 무슨 接觸이니 하느냐」그런 問題와 關聯해서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當局者會談 重視합니다. 否定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 高位級 政治·軍事會談도 사실이냐 우리가 發起하고 우리의 誠意있는 努力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 좋겠다」呼應해서 마련됐죠. 또 우리가 무슨 얘기냐 하면 2차례에 걸친 豫備會談이 空轉을 하고 그리고 또 長期間 中斷된 條件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忍耐를 가지고 이걸 빨리 再開를 해야 되겠다. 再開를 해서 그래서 이거 우리의 무슨 問題點을 빨리 妥結을 하고 그러하고서 이 民族共同의 問題, 民族問題 統一問題를 빨리 解決해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當局者會談 重視해요. 重視하는데, 그런데 貴側에서 말하는 對話의 窓口一元化, 當局의 窓口一元化 이것이 말하자면 좋은건 못됩니다. 어찌 그런가, 統一問題에서 代表性이 관계 있습니까?

宋先生! 貴當局이 統一問題와 관련해서 요즘 方案도 내셨습니
다. 그런데 귀측이 各政黨別로 다 統一方案이 있지 않습니까? 다 統一
方案이 있습니다. 또 在野團體들도 다 統一方案이 있습니다. 어디메 全
民族이 舉族的인 이런 偉業에서 統一問題와 관련해서 代表性이라는게 있
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대해서 더길게 얘기 안 하겠고 그건 내 대답을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가 民間對話도 重視합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民族問
題, 統一問題는 온民族의 意思를 受容해서 그래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만큼 우리가 이제 그 民間대화도 民間접촉도 그것도 우리가 매
우 중시하는 겁니다.

또 말하자면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하는데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민
족의 모두의 의사를 수용해야 된다. 그건 반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거고 그들이 또 民間끼리도 좀 만나서 대
화도 하고 하자 그들이 요구도 하고 또 민간급에서 이렇게 토론하는게
當局對話에 좋으면 좋았지 좋은 영향을 주지 나쁠것 없다 그런 겁니다.
南(宋漢虎): 알았어요, 알았어요.

北(백남준): 그래서 무슨 대표성도 없는걸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통일문
제에 어디메 代表性이 있나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또 말씀을 하셨는데…….

南(廉弘喆): 예,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北(백남준):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안끝났는데 그럼 이제 그쪽
서 귀측에서 무슨 이런 戰略을 버렸느냐, 어쨌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
씀을 하는데, 거기 대해서 말하자면 또 우리도 말할 말 있습니다.

우리도 또 그쪽에 대고 反共을 國是로 하는걸 버렸느냐, 또 그런 대답도 하겠지요. 저 묻겠지요 또 自由民主主義 體制下의 統一路線을 버렸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귀측에다 묻고 싶은 겁니다. 묻고 싶은거고 우리 戰略問題에 대해선 의심하지 마시오.

우린 이미 軍事的으로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 명백히 했습니다. 또 우리는 政治的으로는 우리의 思想과 制度를 그쪽에 다시 내리밀려는 의사가 없다. 그러면 모든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또 具體的으로 우리가 지금 高麗民主聯邦共和國 統一方案을 내놨습니다. 그 統一方案이 뭐인가 아까 金先生도 말씀 많이 했는데, 우리가 北과 南에 서로 존재하는 이런 서로 다른 制度, 思想 이것을 인정하는 기초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가 누구에게 먹히지 않고 누가 누구를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이런 共存의 原則에서 두지역 自治政府가 동등한 義務와 權限을 지닌 그런 自治政府가 聯合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統一國家를 형성하자. 그럼 우리는 그래서 그걸 現實的인 거다.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 統一方案이 貴側에서 또 의미가 있다 하니까 그건 이따 우리가 토론하면 될거지마는 이 우리 統一方案 자체가 이 자체에 무슨 전략이 다른 戰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宋先生이 뭐 여러가지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協商會議 召集方案 내놓은데 대해서 옛날의 統一戰線方式이다, 옛날의 連席會議方式이라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명백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80년에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 내놨습죠, 남조선에서도 政黨, 團體들에게 다 연방방식에 의한 統一方案 등 여러가지 統一方案들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귀측에서도 귀당국에서도 統一方案 내놨죠.

그렇다면 이게 어느 것이 絶對化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남은 과업이 뭐이냐? 이렇게 서로 내놓기만 하지 말고 내놓은 모든 통일방안을 놓고 그걸 보충하고 완성해서 하나의 民族共同의 統一方案을 모색하자 이게 우리 民族統一協商會議 召集提議 및 趣旨이고 이 회의에서 우리가 취해야될 立場과 理念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이렇게 共同의 統一方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어느 일방이 相對方을 누르고 먹으려는 이런 심리를 버려야 된다. 이 問題를 討論하자면, 또 相對方과 競爭을 하고 對決하려는 이런 적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相對方의 것을 덮어놓고 否定하는 이런 편견도 일소해야 된다. 이게 우리 共同의 統一方案을 모색하는데서 우리가 내놓은 根本立場이고 原則입니다. 여기에 무슨 우리 戰略이 뭐이 있습니까? 뭐이 문제되는게 있습니까?

그리고 宋先生 아까 南朝鮮革命的 性格이 어떻고 하는데 그거는 뭐인가 하면 남조선자체의 革命에 대한 問題를 客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석을 한거지 우리가 7.4南北共同聲明이 發表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한 후에 어드메 그쪽을 우리가 치겠다는데 있었으며 우리가 어드메 무슨 戰略에 의한 統一을 하겠다. 뭐 이런거 어드메 있습니까?

南(宋漢虎): 뭐 그러면 그거 拋棄할 겁니까?

北(백남준): 포기한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南(宋漢虎): 그리고 제가 한가지 理解가 안가는데 貴側의 文獻이라든가 기타 演說이라든가에 보면 다 나와있지 않아요?

北(백남준): 가만 계시오.

내가 마저 말씀드립니다. 텀스피리트라든가 그런 問題에 대해선 우리가 이미 1次 2次에 명백히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論議하려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

南(宋漢虎) : 또 그얘기요.

北(백남준) : 아니, 문규현신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이들이 북에 갔다옴으로써 오히려 북과 남에 불신이 더 조성되고 오히려 북과 남사이의 화해와 단합에 오히려 지장을 주고 대화에도 지장을 줬다. 이거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북에 갔다 왔다고 그래서 북에 갔다 오는데 승인도 안받고 갔다왔다고 하는데 그들이 승인을 제기하면 그쪽에서 승인을 했겠습니까? 요구를 하면 승인 하겠습니까? 안했기 때문에. 보시오 아니 무슨 全民族大會 召集을 하자 그쪽에서 承認내고서 나오는 것도 그쪽에서 못나오게 했고 그다음 무슨 民族文學作家會議도 하자 하는 承認提起했는데 그거 나오는거 다 원천봉쇄됐고. 全大協이 13次 世界青年學生祝典에 參加하겠다고 제기를 했는데 귀측의 統一院長官이랑 肯定的으로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하고서도 承認 안했죠.

자, 이거 承認 提起를 하면 承認안하고 그래서 왔다 간거고 問題라고 그러고 이거 정말 코막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南(廉弘喆) : 저, 김영철 代表가 아까 質問한 問題가 …….

北(백남준) : 가만히 계시오.

南(廉弘喆) : 아니 말씀이 기니까, 좀 간단히 간단히 하십시오.

北(김영철) :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

北(백남준) : 제얘기, 아직 안끝났어요.

南(廉弘喆) : 우리 얘기할때도 당신들도 자꾸 끊었잖아요. 예, 말씀하십시오.

北(백남준) : 거 무슨 先生, 이렇게 자꾸 뭐 당신이구 뭐, 이거 자꾸
또...

南(廉弘喆) : 우리는 相對方에 대한 表現이 그게 좋은 表現입니다. 예.

北(백남준) : 그리고 무슨 特別飛行機를 타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
린 定期航路가 있습니다. 定期航路가 있는데.....

南(宋漢虎) : 또 그 이야기는.....

北(백남준) : 거 또 그 무슨 特別飛行機를 갖다, 자꾸 이렇게 뭐, 나는
새로운 問題는 말 안했습니다. 하나도, 아직도.....

南(宋漢虎) : 글썄, 그것이 우리 會談하고.....

北(백남준) : 물론 必要하다면 내가 또 새로운 말을 또 하지요.

南(宋漢虎) : 우리 會談하고 직접 關聯이 없는 問題를 가지고서 자꾸만
會談의 進行을 妨害하고, 遲延시키고 말이죠. 實質問題討議를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北(백남준) : 누가 먼저 말씀했어요?

南(宋漢虎) :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白先生이 아까 基調發言에서 제일
먼저 읽지 않았어?

北(백남준) : 아니.....

南(宋漢虎) : 나는 우리 基調發言文에서 準備도 안했어요. 사실상.....

北(백남준) : 솔직히 말하면, 우리 基調發言에서 나는 이 會談을, 會談을 우
리가 이제 7個月後에 열리는 問題 있겠습니까? 이 問題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거 오늘 會談에서는 빨리 實務節次問題를 討論하고 그래서 빨
리 本會談을 앞당겨야 되겠다, 그런 問題를 가지고. 구태여.....

南(宋漢虎) : 자 그러니까…….

北(백남준) : 우리가 지금 말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래서 그건 다 좋게 말씀했구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말이고 하면 그 訪北人士들에 대한 問題, 貴側에서 이걸 좀 대범하게 釋放하면 우리가 霧圍氣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린 글썄, 우리하고 만나고 나간 사람을 그러기 때문에 사실 貴側이 우리를 反對하는거다 그거와 같은 거지마는, 그것도 있지마는, 問題는 이거 統一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거 누구하고 단결하고 누구하고 統一을 하겠느냐? 이런 意味에서 이거 내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걸 우리가 提起를 했었는데, 무슨, 宋先生! 좌우간 뭐, 내 여기서 또다시 反復은 안해요. 내 이제는 基本的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의 立場을 밝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뭐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會談이 잘 될것 같지 않아요. 會談이 잘될것 같지 않고. 이것 지금 말하자면 問題가 점점 별나게 이렇게 번져나가고 그런데, 한번 宋先生! 보십시오. 좀 대범하게 할 생각을 좀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거 林秀卿이, 林秀卿學生이 우리한테 왔을때 倒着하는 순간부터 여기 돌아올 때까지, 정말 꽃보라속에서, 꽃다발속에서 묻혀 있다가 왔고 가는 곳마다에서 사람들, 男女老少 어린애 할 것없이 받들리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구 그 林秀卿學生이 가는 곳마다에서 말한 것도 統一을 위해서 말했고, 노래를 불러도 統一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의 所願은 統一, 이거 무슨 유치원이나 人民學校, 中學校나 高等中學校나 大學生, 그 다음에 이런 社會 이런 모임들에 이르기까지 이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저 오가는 사람들이 다, 모두 뭐이고 하면 콧노래를 부르고, 저저 모이면 앓아 부르고, 이렇게 받들리다 왔는데…….이거, 宋先生 너무 對照의인게 뭐나하면, 나오시자 그들이 나가자마자 足鎖를 채웠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이 보건데 우리로서 정말 우리 政府에 맡기고, 거 무슨말이나 하니가 政府의 모든 것을 委託하겠다. 오히려 그걸 우리 같았으면 統一을 위해 좋은일 하는데 英雄이라고 받들고, 오히려 讚辭를 받을걸 갖고 그런데요.

南(宋漢虎): 우리 白先生, 白先生이야기 하는것 보니까 지금 오늘 實務接觸, 實務節次에 관해서는 討議할 意思가 없는것 같어요. 나도 한마디 좀 이야기를 할텐데…….

北(백남준): 거즘, 나이 어린 學生을 한번 대범하게, 大局的으로 한번 좀 내놔주요.

南(宋漢虎): 지금 白先生! 그건 또 자꾸 아까 이야기 하던 文益煥이라든가 林秀卿 거론하면서 뭐 釋放하라, 이런 식으로 內政干涉的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모든 國家는 말이죠 그것이 現代國家이건 古代國家이건 君主國家이건 막론하고 對外政策의 추진은 政府가 하는 거예요. 政府가 獨占的으로 하도록 그 權限을 賦與받고 있는것이 基本原理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統一政策을 비롯해서 기타 對外政策이라는 것은 政府가 主體가 되어서 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나라에 共通되는거죠. 貴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文益煥이든가 林秀卿은 어떻게 되었느냐. 政府의 許可도 받지 않고, 自己가 무슨 權限이나 代表性도 없는데 그냥 멋대로 北에 가가지고 貴側에 同調하고, 貴側의 主張을 讚揚하고…… 무슨 뭐, 南쪽에서의

투쟁을 煽動하고, 이런 식으로 實定法을 위반했는데, 이 實定法을 위반한 걸 司法處理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거냐? 貴側立場을 생각해봅시다. 貴側에서 그럼 과연 어떤 學生이라든가 혹은 어떤 사람이 貴側을 反對해 가지고서 이쪽에 몰래 넘어와가지고 우리側하고, 우리側의 政策이라든가, 혹은 統一方案을 아주 讚揚하고, 적극적으로 支持하고 貴側을 헐뜯고 誹謗하고 그렇게하고 갔다 그랬을 때에 貴側으로서는 그 學生이나 그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내가 볼 때는 목숨 부지하지 못하리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北(백남준) : 우리는 그저 統一을 위해서 나갔다 왔다 그러면 歡迎을 하겠습니까.

南(宋漢虎) : 貴側의 그야말로 그런사람, 林秀卿이라든가, 무슨 文益煥이 司法處理하는 걸 가지고 자꾸만 是非를 하는 것은 그야말로 不當한 內政干涉이고, 事實上 그런 事件들로 인해서 지금 南北關係가 상당히 緊張이 激化되고 있지 않습니까?

南北關係가 惡化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問題를 가지고 또 이러쿵 저러쿵하면서 內政干涉的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견 賊反荷杖입니다.

北(백남준) : 그게 어찌 內政干涉이여.....

南(宋漢虎) : 그리고 貴側이 그런걸 보며는 이번 實質問題 討議 하나도 할 생각도 없고, 또 우리 體制를 顛覆하기 위한 統一戰線戰略이라든가, 우리 內部를 흔들어보겠다는.....

北(최성익) : 宋先生!

南(宋漢虎) : 이와 같은 立場에 아무런 變化도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합니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北(최성익) : 말씀을 내가…….

南(宋漢虎) : 내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文益煥문제는 사실상 大韓民國의 憲政秩序를 攪亂・破壞한 행동입니다. 이것은 貴側의 對南戰略에 입각해서 추진된, 對南策略的인 行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건 分明합니다. 그건 우리 搜查機關의 여러가지 調查結果에서 이미, 今年 3月달에 넘어가기 前에, 貴側에서의 便紙를 1月달에 받기 前에 昨年 9月달부터 이미 貴側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接觸하고 모든 密入北節次를 추진했었습니다.

北(최성익) : 今年 1월 30일, 그쪽에서 傳達해주지 않았어요?

南(宋漢虎) :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貴側의 工作에 의해서 간 것이라는 것을 分明히 이야기를 해두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들으세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우리 소위 말하는 對話를 위한 誠實한 姿勢라고도 볼 수 없고, 우리 對話相對方에 대한 愚弄입니다. 그리고 正常的인 對話라든가, 혹은 南北關係改善, 和解, 이러한 것에 대한 關心이 없다. 난 이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看過할 수 없는 것은 말이죠, 貴側이 여러가지 이야기한 것 있어요. 이 問題와 관련해 가지고, 내 한번 좀 읽어 볼게요?

北(백남준) : 거, 입을 내기 할랍니까?

南(宋漢虎) : 아, 가만히 계세요.

北(백남준) : 그까지것, 뭐 입을 내기 함시다. 나도 여기 입을꺼리 많소.

南(宋漢虎) : 지금 말이죠, 귀측의 朝鮮社會民主黨, 지난 4月달의 聲明이라

는 것을 낸 것을 봤어요. 거기 뭐라고, 어떻게 돼 있느냐.

北(최성익) : 會談 안하시겠습니까?

南(宋漢虎) : 우리 政府를…….

北(최성익) : 會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南(宋漢虎) : 우리 政府를 공공연하게 打倒해야 된다고 宣稱하고 있어요.

내가 한번 읽어 볼게요.

北(최성익) : 宋先生! 會談을 귀하게 여기셔야지요.

南(金保鉉) : 首席代表가 이야기하는데 좀 조용히 합시다. 거 어째 그렇소?

南(宋漢虎) : 貴側의 朝鮮社會民主黨 중앙위원회는 16일 聲明을 發表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南朝鮮에서 벌어지고 있는 事態는 國家保安法과 같은 파쑈惡法은 그대로 두고, 盧泰愚一黨과 같은 파쑈賣國集團을 權力의 자리에 그대로 두고서는 社會 自由化, 民主化도 실현될 수 없고…….』

北(백남준) : 아니, 社會民主黨 얘기를 우리하고, 허, 허.

南(宋漢虎) : 『北南對話와 나라의, 이와같은 일도 推進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의 各黨各派, 各계各층人民들은 파쑈적인 國家保安法을 철폐하고…….』

北(최성익) : 그게 이 會談하고 무슨 關係가 있어요? 宋先生!

南(宋漢虎) : 『盧泰愚一黨을 政權의 자리에서 退陣시키기 위해, 굳게 뭉쳐 싸워야 한다.』

北(최우진) : 무슨 關係가 있어요? 이 會談하고?

北(최성익) : 宋先生!

南(宋漢虎) : 『우리 朝鮮社會民主黨은 自由·民主·統一을 위해서 과

감히 싸우는 남조선의 統一民主勢力과 광범한 人民大衆의 의로운 투쟁을 계속 적극 支持・聲援, 支援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나 이것을, 그야말로 우리 盧泰愚一黨을 政權의 자리에서 退陣시키기 위해서 굳게 뭉쳐, 그 무슨 투쟁해야 된다. 뭐 또, 우리 人民大衆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支持・聲援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政府를 그야말로 반대하는 투쟁을 충돌시킬하고, 우리 體制를 否定하고, 우리 政府를 對話와 協商의 對象이 아닌 打倒의 對象으로 이야기하는게 아닙니까!

지금 우리하고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는 政府當局間의 對話가 아닙니까?

北(백남준) : 政府當局間이 말하는데 그 무슨…….

南(宋漢虎) : 그러면서도 우리 政府를 이렇게 打倒의 對象으로 공공연하게 宣言하고 있는데…….

北(백남준) : 朝鮮社民黨하고 對話합니까?

南(宋漢虎) : 가만 계세요. 이야기를 들으세요, 들으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도 같은 생각입니까? 白先生도? 白先生도 같은 생각이나 이겁니다.(쌍방소란)

南(金保鉉) : 거 좀 自重합시다.

南(宋漢虎) : 여러분들도 조선사회민주당하고도 같은 생각이나 이겁니다. 한번 分明하게 답변하세요.

北(백남준) : 아니, 아까 내가 말하면 됐는데 믿지 못해서 거 또 물어봅니까?

南(宋漢虎) : 이런 식으로, 그럼 白先生이 같은 생각입니까?

北(백남준) : 우리는, 우리는…….

南(宋漢虎) : 反對입니까? 分明히 말하세요.

北(백남준) : 우리는 그쪽을 무슨 征服할 생각도 없고, 征服할 생각이 있으면 무엇 때문에 여기 마주 앉아서 이렇게 討論을 하겠습니까?

南(宋漢虎) : 그러니까 이제는, 對決을 고취하는…….

北(백남준) : 民主黨問題야 뭐이 대수요? 民主黨보고 여기 들고 나와서 우리보고, 거 宋先生!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닌데…….

南(宋漢虎) : 그런 식으로 對決을 鼓吹하는…….

北(백남준) : 우리 쪽에도 各政黨들이 다 自己意見을 말하고, 自己主張을 내놔요.

南(宋漢虎) : 아 그러니까, 같은 생각이나 그것입니다. 分明히 얘기하시요.

北(백남준) : 아니, 같은 생각이나 아니냐는 내가 아까 말을 했는데, 내가 충분히…….

南(宋漢虎) :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北(백남준) : 民主黨 것을 내가 어떻게 責任을 지느냐.

南(宋漢虎) : 다 다르다 이거죠? 그런 생각없다 이것이죠?

北(백남준) : 아까 明白히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 對南戰略이란, 무슨 그쪽에서 말하는 것같이 무슨 그걸 먹는 戰略이 없다.

南(宋漢虎) : 없으세요?

北(백남준) : 없습니다.

南(宋漢虎) : 그럼 어디…….

北(백남준) : 明白히 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南(宋漢虎) : 그러면 勞動黨規約 前文에 이야기한 거는 뭐니까? 그건 어

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戰略, 그것은…….

北(백남준) : 뭐니까?

南(宋漢虎) : 前文에 보게되며는 무슨 지금 勞動黨의 當面目標은 共和國 北半部에 完全한 自由, 社會主義 勝利를 이룩해 가지고 全國的 範圍에서 朝鮮革命을 勝利로 이끌고 民族을 解放하고 그다음에 最終적으로는 무슨 主體思想을 온 社會에서 主體思想을 하고, 共產主義 社會를 建設한다. 이런 건 뭐예요? 그건 뭐니까? 그런 건 否定하는 겁니까?

北(최성익) : 아니, 宋先生, 宋先生! 내가 한마디 대답하지요.

南(宋漢虎) : 가만히 계세요. 내가 얘기를 할게요.

北(최성익) : 聯邦制 統一方案 보고 왔습니까?

南(宋漢虎) :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리고 이런 式으로 對決을 고취하고 和解와 協力에 逆行하는 이와같은 行動을 하면 안됩니다. 빨리 責任있게 그런 姿勢를 버리고, 政治工作 통해 가지고 무슨 내부교란을 하지 말고 그리고…….

北(백남준) : 政治工作하는 게 아니에요. 거, 뭐, 念慮할 게 하나도 없어요.

南(宋漢虎) : 그리고 아까 民族統一協商會議에 대해서 죽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 사실상 우리 白先生님도 아까 基調發言에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런거야 사실 옛날에 내놓은, 아무 새로운 것도 없고, 옛날에 뭐죠?

그 옛날 사실 48년도부터 내려왔던 連席會議의 再版이 아니고 뭐니까?

그거 48年度에 귀축이 말이죠, 南北社會團體 代表者 連席會議 해가지고

거기서 뭐 무슨 會議을 하자.

北(최성익) : 그래 거기서 當局 參加했습니까? 參加했습니까? 對答하십시오. 再版이라고 하는데…….

南(金保鉉) : 아니, 우리 首席代表이야기 하는데 자꾸 뒤에서 방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들어보시고 말씀하세요.

南(宋漢虎) : 가만 계세요. 當局이, 그렇게 해가지고 金九先生이라든가 金奎植博士一行을 모셔다 놓고, 一方的으로 짜놓은 스케줄에 따라서 會議을 하고…….

50年代에도 마찬가지로요. 이와 비슷한 連席會議 해가지고 무슨 뭐 거기에다 統一問題를 論議하자 그러면서 그때 우리 南쪽에서 活動하고 있던 民主政黨인 大韓國民黨이라든가 民主國民黨, 이걸 協議對象에서 빼야 된다. 혹은 무슨 뭐 우리 그 當時 李承晚博士라든가 혹은 金性洙씨라든가 혹은 李範奭氏등 民主 有名人士들은 빼야 된다. 이사람들은 民族反逆者다.

이런 式으로 이야기 하면서 그랬는데…….

北(백남준) : 統一하겠다는 말 안했는데…….

南(宋漢虎) : 그런것이, 그런것이 結果的으로는 協商을 통해서 南北問題를 解決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相對側을 吸收하겠다는 併合論理예요.

그뿐만 아니예요. 最近에 와서는 貴側이 80年代 들어와서 생각해 봅시다. 貴側, 80年代 우리가 1월 22일날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 내세웠을 때에…….

北(최성익) : 그런 구태의연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제발. 아까운 時間에.

南(宋漢虎) : 貴側이 어떻게 對答했느냐? 南北政治人 100人 聯合會議를 하

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南側에서 오는 50 명의 代表를 貴側이 一方的으로 選定을 했어요.

그리고도 그것도 우리 當局이라든가 그 當時 活動하고 있던 뭐 民韓黨이라든가 民主黨, 뭐 國民黨이 아니라 그 뭐 유령단체까지, 심지어 유령단체들의 代表者, 反政府團體 이런 代表者들만 골라가지고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런 式으로 相對方의 代表를 選定하고 指名하는 이런 行動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런 거 있습니까?

北(백남준): 그러면, 宋先生이…….

南(宋漢虎): 아니 내가 그쪽에서…….

北(백남준): 宋先生!

南(宋漢虎): 가만 계세요.

北(백남준): 宋先生이 마음에 드는 團體에만 보내면 이의가 없겠습니까?

南(宋漢虎): 그건 相對方에게 다가 맡겨야지 어떻게 一方的으로 맡기지 자기가 指名합니까? 이것이야말로 獨善의이고 獨斷的인, 그야말로 教條主義입니다.

이런 式으로해서 統一問題를 푼다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이, 그것 뿐만이 아네요. 지난번 작년에 1월달에 뭐 連席會議를 하자고 그러면서, 共同主催올림픽하자, 무슨 「팀스피리트」訓練 中止하자, 이런 問題를 가지고 論議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보면 이 새로운, 貴側의 民族統一協商會議도 새로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 어떻게 얘기 하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北(백남준): 連席會議를 하면 나쁘게 뭐 있나요? 아니, 뭐가 나쁘냐고?

南(宋漢虎) : 포장만 바꾸어서 내놓은 統一戰線戰術의 策略이다. 나는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런것 가지고서 또다시 이북에서 오늘 論爭을 벌이다보면 貴側의 여러가지 提案에 관해서 나도 할말이 많습니다. 繼續해서…….

北(백남준) : 뭐 또 이야기 할려면 합시다. 뭐.

南(宋漢虎) : 그리고 貴側이 말이죠. 民族統一協商會議와 관련해 가지고서 마치 무슨 貴側의 聯邦制에 대해서 伸縮性을 가지고 있는 것같이 이야기 하지만 내가 看過할 수 없는 것은…….

北(백남준) : 왜 그렇게 또 誤解는 합니까?

南(宋漢虎) : 看過할 수 없는 것은 우리 大韓民國에서 最近…….

北(백남준) : 그 말씀 다하기 前에 내 그 意圖를 알만한데…….

南(宋漢虎) : 지난 9월 11일날 發表한 「한민족공동체 統一方案」을 우리 社會內部에 亂立되고 있는 여러가지 統一方案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야말로 相對方에 대한 冒瀆이고 우리 方案…….

北(백남준) : 平民黨이랑 民主黨이랑 다 國民的 會意를 보지 않아서 不當하다 그래요? (웃음)

南(宋漢虎) : 우리 國民的 合意속에서 마련된 우리 통일방안을 評價切下하는 行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그동안에 1年間에 걸쳐서 광범한 國民的 意見을 다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北(김영철) : 平民黨이 뭐라고 말하고, 民主黨이 뭐라고 말하고…….

南(宋漢虎) : 그건 政治的 立場이에요.

지금 우리 統一方案에 대해서 最近에 實施한 輿論調査에 의하며는 그

對象者 1,500名중에 92%가 다 妥當性있는 方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海外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나? 이것, 정말 統一을 이룩할 中間節次에 대해서 具體的인 方案을 提示하고 있고 또 統一을 위한 여러가지 客觀的 與件을 充分히 反映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제, 그저께 蘇聯에서도 모스크바放送이 소비에트 러시아誌의 論評을 引用해 가지고 建設的인 方案이다. 그리고 貴側의 提案도 充分히 考慮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肯定的으로 評價를 하고 있어요.

北(김영철): 아니, 그러면 會議마당에 나오라고, 나오라고. 뭐 걸리는 것이 있어서 못나옵니까?

南(宋漢虎):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北(백남준): 우리가 貴側의 統一方案을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놓고서 討論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南(宋漢虎):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北(백남준): 貴當局이 내놓은 統一方案이 有效하고 그것이 우리 民族統一의 基調가 되어야 한다 그겁니까?

南(宋漢虎): 우리 政府가, 政府의 統一方案을 광범한 國民的 合意에 바탕을 놓은 겁니다.

北(백남준): 그쪽의 「한민족 통일방안」이라는 것이 그래 우리 民族全體를 代表하고, 意思를…….

南(宋漢虎): 代表하죠. 우리 南쪽의 意思를 代表합니다. 分明하게 代表합니다. 貴側이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을 解釋하고 보고 그런데 問題가 있는

것입니다.

北(백남준) : 平民黨이랑 民主黨이랑, 다함께…….

北(최성익) : 9월 29일 平民黨에서 어떻게 이야기 한줄 압니까?

南(宋漢虎) : 우리가 지금 公聽會를 開催하여 가지고 主要政黨과 社會團體 代表들이 나와서 發表한 主張이라든가 提案들을 폭넓게 綜合적으로 다 反映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相對方의 어떤 提案이라든가 方案에 대해서…….

北(최성익) : 좋다고 생각하면 討論마당에 나오세요. 討論마당에 그 마당이 있는데 왜 못나오면서 자꾸만 그래요. 나오면 돼요.

南(宋漢虎) : 統一方案問題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政治協商會議에서 다를 性質의 것이 아닙니다.

北(최성익) : 나와서 말해 보세요.

南(宋漢虎) : 政治協商會議가 그 어디 무슨 會議方式입니까?

北(최성익) : 왜 못해요. 나오세요.

南(宋漢虎) : 그런 群衆集會로서 實效性있게 南北問題를 解決할 方式입니까?

北(최성익) : 나오세요.

南(宋漢虎) :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北(최성익) : 나오세요. 나오세요.

南(金三勳) : 政黨 少數意見은 우리가 수렴하는 거니까 貴側이 念慮하지 않으셔도 돼요.

南(宋漢虎) : 그런 식으로 말예요. 그런 식으로, 白先生님!

北(최성익) : 뭐인가, 아까 祖國平和統一委員會에 대해서 그 代表에게 말했다. 뭐 이야기 할게 있다.

그래, 선생은 이게 뒤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對話에서 하는 이야기인지
그래 이건 總理들이 다 委任해서 나와서 하는 건데 아, 그쪽의 金代表
가 무슨 權限이 있기 때문에…….

南(宋漢虎) : 白先生! 저, 舌戰만 交換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늦
었지마는 實務問題 討議를 할 겁니까?

南(金三勳) : 그게 代表資格을 이야기한게 아네요. 理解를 잘 못하시는구만.

南(宋漢虎) : 實務問題 討議합니다.

北(최성익) : 그쪽에 도대체 대화에 대한 상식이 있느냐 도대체 앞에서 하
는 얘기냐 뒤에서 하는 얘기냐?

南(金三勳) : 文益煥이라는 個人을 불러다놓고 合意書를 發表하는데 거 뭐
인가 하면…….

南(宋漢虎) : 實務問題 討議합니다.

北(최성익) : 뭐인가하면 그쪽의 總理한테 가 물어보시오.

北(백남준) : 가만 宋先生! 내 말씀 한번만 들어보시오.

南(金三勳) : 내가 分明히 얘기하는데 그런 뜻이 아네요.

南(宋漢虎) : 그래 實務問題 討議로 들어갑시다.

北(백남준) : 내말을 한마디만 들으라요.

北(최성익) : 그런 沒常識하고 無分別한 이야기를 하지 마시오.

北(백남준) :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를 거론하자고 하기 때
문에 난 말 안하겠오. 난 말 안하겠어요.

南(宋漢虎) : 白先生! 實務問題 討議를 하지 않으려면, 실무문제 토의하지
않으려면 이 會談 오늘은 끝냅니다.

北(백남준) : 先生, 反對없습니다.

南(宋漢虎) : 實務問題 討議하겠어요? 實務問題 討議하고 싶은데, 나는 實務問題 討議하고 싶어요.

北(백남준) : 反對없는데, 아니, 가만…….

南(宋漢虎) : 그렇지 않으면 더이상 實務問題 討議를 하고 싶지 않으면 오늘 會談 그만 하지요.

北(백남준) : 展開는 않겠는데 한가지만 내 알고 싶은것이 있어요. 宋先生!

北(최성익) : 거 20분동안 혼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南(宋漢虎) : 아니 白先生이나 여러분들이 한 이야기가 相對方을 자극하고 相對方을 아주 모독하는 內容으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北(백남준) : 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會談 劈頭부터 내가 誠實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내 이것 더 展開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北(최성익) : 아니,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가 뭐데 代表資格이 있냐 없냐 이렇게 말하는 판에 무슨……

北(백남준) : 가만 (北側 代表를 향해), 가만있어요. 宋先生님! 가만있어요. 宋先生님!

南(金保鉉) :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南(金三勳) : 말을 잘 못알아 들으셨다니까!

北(백남준) : 에, 貴側 今年度 8.15 演說에서 未光復地域이다. 우리를, 未光復地域이다.

우리는 7.4 南北共同聲明 以外에 우리 當局에서, 當局에서, 아까 무슨 宋先生님이 이렇게 말씀 많았는데, 그런걸 어디에서 찾아 봤습니까?

그런데 貴側이 이번 8.15 연설에서 우리를 미광복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이거 하나 물어보고 우리가 미광복지역인가? 그러면 우리를 광복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이고.

하나는 뭐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의 統一, 이게 승공통일이 아니냐? 滅共統一論이 아니냐? 그 두가지만 말씀하십시오. 나는 더 展開를 안하겠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좀 한번 宋先生의 對答을 듣고 싶습니다.

南(廉弘喆) : 예, 답변하겠습니다.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南(宋漢虎) : 답변하세요.

北(백남준) : 딱 요문제만 답변하십시오.

南(廉弘喆)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 길게 안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철 代表께서 질문하신 問題, 지금 團長께서 질문하신 問題,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두문제 다 상당히 중요하고 本質的인 問題입니다.

아까 김영철 代表께서 무슨 말씀 하셨느냐면, 우리가 같은 民族이나 아니냐 또 우리가 反國家團體나 아니냐, 이것을 딱 부러지게 대답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答辯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오늘 이 會談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죽 그동안에 南北間에 進行된 會談을 지켜보면서 상당히 현실과 유리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貴側에서 기회있을 때마다 主張하는 것이, 우리는 같은 民族이다 統一을 해야 된다. 또 文益煥牧師나 林秀卿學生도 같은 民族인데 統一을 論議하기 위해서 北側에 왔는데 무슨 죄가 되느냐? 빨리 구속을 풀어라.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貴側의 主張대로 우리가 같은 民族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6천만 民族이 전부 統一을 念願하는게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分명한 하나

의 現實이고 事實이고…….

北(백남준) : 아 그러니까, 자꾸 다른 얘기 하겠습니까?

南(廉弘喆) : 말씀들어 보십시오. 예, 對答하는 겁니다.

이게 現實이고 어떻게 보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이러한 현실, 이러한 사실 말고 또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자리를 경계로 해서 南北이 軍事的인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당위적이든 아니든 關係없이 사실입니다.

그 原因은 뭐냐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40년간 分斷이 되었고 그 分斷된 가운데서 不信과 여러가지 갈등이 첨예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貴側에서 지금 자꾸 없애라고 하는 우리의 무슨 法體系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또하나의 現實, 즉 같은 民族이다, 統一이다 하는 現實 말고 軍事的으로 政治的으로 대결하는 또하나의 現實을 規制하는 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會談을 하는 것은 北에서도 그동안에 貴側에 憲法 11條라든지, 刑法 67條, 68條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또 우리側에서도 國家保安法の 일부가 없어지는 南北關係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오늘 會談합니다.

그런데 아, 제말씀들어 보십시오(騷亂)

됐어요, 아 글썬요, 대답합니다.(北側代表의 發言沮止에 대하여)

그래서 바로 이러한 會談을 통해서 兩側의 그런 規制法律을 소멸시키는 것이 이 會談의 목적인데, 貴側은 會談이 진행되기도 전에 그 法부터 먼저 없애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事理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會談, 마치 지금 統一이 完成된 것처럼, 完成되기 직전의 南北關係처럼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分斷狀況, 6.25 戰爭으로 인한 불신, 그런 것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를 우리가 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會談하는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南北, 지금 民族共同, 아, 제 말씀 먼저 들어 보십시오. (北側代表의 發言阻止에 대해)

무슨 말씀이나 하면 아까 民族共同體나 아니냐 또 물으셨어요.

우리는 民族共同體였는데 6.25 戰爭으로 인하여 民族共同體가 毀損됐습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 발전시키는 중간단계가 必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會談도 그것에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전부 무시하고, 아무런 불신도 없고, 아무런 갈등도 없고, 軍事的 대결도 없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統一하자는데 무슨 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無視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정한 會談의 성공을 위해서는 貴側 그런 主張은 난삼가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團長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하면, 自由民主主義體制로의 統一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理念, 우리의 理念을 그쪽에 강요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貴側이 잘 아시는 것처럼.....

北(백남준) : 그런 滅共統一戰略은 없겠습니까. 예?

南(廉弘喆) :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蘇聯도 변하고 있습니다. 동구라파도 변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에서도 지금 共產黨이 이미 종식을 告하고 社會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제 말씀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貴側과 理念을 같이하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變化라는 것은 自由와 民主입니다. 自由와 民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貴側이 그 정도는 변화가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변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는 뜻입니다.

그게 제 답변입니다.

北(백남준) : 그제 뭐인가 하면 오늘…….

南(宋漢虎) : 아, 이렇게 합시다.

北(최우진) : 發言 안했는데, 다른 問題 아니고 이 會談을 어떻게 앞으로 성과적으로 이어 나가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내 오늘 發言을 안했는데, 간단히 좀 한두마디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 제기된 問題를 우리가 어떻게 考察해야 되는가? 이 提起된 問題考察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입니다.

例하게 되면 우리가 오늘 基本發言에서 두가지를 提起했는데, 하나는 이쪽의 文牧師問題하고 林秀卿學生問題, 實務接觸問題를 제기했는데 文牧師와 林秀卿學生問題가 전번 문제다. 이것을 考察할때 어떻게 이 問題를 考察해야 되는가? 지금 考察하는 각도가 쌍방이 다릅니다.

例하게 되면 貴側에는 어떻게 考察하는가. 이 문제를 제기된 문제 전반을 보지 못하고 부분을 본단 말입니다. 호상 연관속에서 보지 못하고 고립된 狀態에서 본단 말입니다.

우리 文牧師·林秀卿學生問題를 놓고 보게되면, 이것은 하나의 南쪽에만, 貴側에만 局限되는 부분적인 문제인게 아니라 우리 대화일방인 우리와도 關係되는, 이와같이 관계되는, 전반적으로 考察하면서 봐야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고립된 狀態에서 貴側에만 關係되는 問題로 보는게 아니라 우리와 연관속에서 봐야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문제가 뭐인가? 이거 문제는 시각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무엇에 基準해서 우리가 쌍방이 맞아 對話를 하는데 무엇에 基礎해서 제기된 問題를 考察해야 되는가?

우리 쌍방이 考察해야, 기초를 해야될 原則으로 삼아야될 問題는 7.4 共同聲明이다.

7.4 共同聲明에 기초해서 제기된 問題들을 觀察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評價하고, 그에 基礎해서 對話를 진척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文牧師問題・林秀卿學生問題는 이 7.4 共同聲明, 祖國統一3大原則과 關聯되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問題를 提起했고, 그와같은 그것을 척도로 해서 문제를 判斷할 것을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보면 문제를 보는 각도가 이와같이 한쪽 측면만, 자기측면만 절대화 하자니까, 뭐 이게 內部問題요, 이게 무슨 우리 會談外的인 問題요, 이런 식으로 마주 앉아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제기된 문제를, 우리 對話를 하고 있는 만큼, 자기측만 생각하는게 아닌 對話 相對方도 考慮해서 제기된 問題를 풀 수 있고 또 이거 合意點을 摸索할 수 있다. 전 이렇게 主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提起한 問題도 오늘 많은 시간이 갔는데, 提起한 問題도 심사숙고해서 對話一方이 제기한 것 만큼 妥當하게, 妥當性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問題에 대해서 對話의 姿勢와 立場問題에 대한 것도 宋先生님이 이야기했는데, 그 問題로 말하면 우리가 實務節次問題에 대한 것도 場所問題라든가 隨員問題다. 커다란 讓步를 하며 提起를 했는데 한날 基調發言에서 그와같은 實務問題에 대해서도 既存의 1次會談에서 提起된 것 그대로 고집했지 뭐하나 提起된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對話姿勢問題 하나만 놓고보아도 우리가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기된 問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 祖國統一 3 大原則이다, 그렇게 하고 절대 自己側만 보지말라, 問題를 部分的으로 보지 말고 孤立姿勢로 보지말고 全般을 全般으로 보고 聯關性에서 考察하고 이렇게 해야 問題를 똑똑히 풀 수 있다고 나는 이렇게 오늘 會談을 축하하면서 다르게 介入안했는데, 介入안했는데, 잘 앞으로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南(金保鉉) : 당초에 問題를 提起하지 않으면 實務討議에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南(宋漢虎) : 내가 이야기 좀 할게요. 이제 7.4 共同聲明 이야기를 죽 했는데 崔先生이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7.4 共同聲明 發表以後 南北調節委員會가 構成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72年 11月달에 南北間에 調節委員會 構成과 그 運營에 관한 合意書를 우리가 採擇했습니다. 거기에 보며는 調節委員會 機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北(백남준) : 또, 또 …….

南(宋漢虎) : 아니,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 할게요.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며는 「南北政治人들간에 交流와 協力問題를 서로 協議・決定하고, 그 實行을 保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經濟的・社會的・文化的 交流와 協力問題를 協議・決定하고 그 實行을 保障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뭐냐 하게 되며는 南北調節委員會가 當局間 會談입니다. 南北調節委員會會議에서 모든 政治的・經濟的・社會的・文化的인 이런 交流와 協力問題를 다 合意・協議・決定을 하고 그 바탕위에서 다른 어떤 民間級的

交流라든가 協力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거기 담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7.4 共同聲明의 精神이라든가 그때 南北間의 調節委員會들간에 合意된 合意書를 우리가 尊重한다면 당연히 當局間의 對話를 통해서 南北의 懸案問題를 合意·解決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意味에서는 林秀卿이라든가 혹은 文益煥이라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當局의 許可도 받지 않고 委任도 받지 않고 이런다는 것은 모두 違法行爲이고 犯法行爲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會談을 2時間 50分以上 進行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상 나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우리 白先生한테 대해서 우리 實務節次問題討論을 좀 들어가자 그랬는데, 오늘 實務節次問題는 한발자국도 들어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會談外的인 問題만 가지고 오늘 舌戰을 交換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닌데,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貴側에 모든 責任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實定法을 違反한 이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司法處理 하는건 당연한데, 그것을 是非하고 무슨 우리에게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干涉하는 態度를 취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늘 會談이 별로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進行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貴側의 이러한 態度라든가 立場에 무슨 變化가 없는 이상은 오늘 이렇게 더 해봤댔자 아무런 成果라든가 進展을 볼 수 없다. 또 時間도 이렇게 많이 지나고, 그래서 오늘 會談은 이것으로 끝나치고 다음부터 會談에 나와서는 그런 會談外的인 問題를 가지고 擧論하고 그 걸로 인해가지고 對話進行에 障礙를 造成하지 않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協調를 좀 付託합니다. 우리 白先生.

北(백남준) : 오늘 우리는 이 3次 豫備會談에 文益煥牧師·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의 平壤訪問問題와 關聯해서 貴側에서 그들을 處刑하려고 하는 이런 問題와 關聯해서 貴側이 그들을 拘束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어 놓은 活動에 대해서 높이 評價를 하고 讚揚을 하고 釋放해줄데 대한 要求에 대해서 肯定的인 呼應을, 呼應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고, 하나는 實務節次問題와 關聯해서 우리는 一部 讓步도 하고 또 一部 折衷도 하는 우리 提案을 내놓았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가 提起한 그 問題中の 하나인 이 訪北人士들에 대한, 그들을 이제 釋放할 데 대한 우리들의 要求에 대해서 貴側이 會談劈頭부터 우리 民族問題, 이 統一問題와 關聯이 없고 또 우리가 提起한 問題에 問題外的인 그런 問題를 들고나와서 會談앞에 難關을 造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論難을 벌이던 끝에 오늘도 역시 우리 會談이 空轉을 하고 끝나게 된 이런데 대해서 매우 遺憾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實務節次問題와 關聯해서 우리가 이 會談을 發起한 사람으로서 1次會談 場所를 貴側이 굳이 서울로 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는 反對 없다.」 그래서 굳이 要求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讓步할 意思가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雅量있는 提案을 내놓았는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여기서 이렇다할 合意를 보지 못했고, 그러구 오늘 會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우리의 會談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內外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오늘은 일곱달 이상 中斷 되었다가 열린 會談인 만큼 사람들이 期待도 많았는데 역시 失望을 주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貴側이 會談에 임하는 데서 정말 이거는 民族統一, 民族統一을 진정으로 바라는 이런 立場을 가져야 하며, 또 이런 對決에서 벗어나는 이런 姿勢를 가져야 하겠고, 對話를 重視하고 對話를 아끼는 이런 立場을 가져야 되겠다고 하는걸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 會談의 모든 것이 잘 돼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會談에서는 相對方을 刺戟하고 相對方의 물음에 대해서, 나올때는 그것을 판테로 이끌어 가고 會談 앞에 難關을 造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일이 그때는 없도록 해야 하고, 眞正으로 우리 會談을 成功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眞心으로 誠意를 가지고 協調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希望을 表示하고.

그다음에 貴側에서 오늘 우리가 提起한 問題인 文益煥牧師,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에 대한 그들을 이제 處刑할게 아니라 내놓아야 된다고 하는, 내놓는 것이 옳다고 하는 우리의 提起에 대해서 내가 이자리에서 묻는 것은 宋先生이 答辯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深思熟考 하셔서 肯定的인 釋放措置가 취해지리라는 그런 期待를 역시 表明을 하면서, 모처럼 오래간만에 만났던 이 會談이 지금 自己의 結實을 가져오지 못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걸 오늘 會談에서 정말 實務節次問題를 위해 좀 討論했으면 몇가지는 오늘 合意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뭐인가 하면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끝이 없단 말입니다.

貴側은 지금 동구라파 일부 나라들처럼 이렇게 所謂 自由, 所謂 民主主義 方向으로 우리가 나갈 것으로 그렇게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것도 事實은 오늘 이 자리에서 뭐 舉論할 問題가 못되고…….

역시 이 問題에 대해서 말한다면 貴側의 저의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疑心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民主主義의 최고형태인 社會主義 民主主義를 理念으로 하고 있는만큼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고 또 역시 거기에서는 말하자면 貴側이 要求하는 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는 데에 대해서 貴側이 똑똑히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다른 問題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자면 또 끝이 없겠고. 한테 우리의 立場을 明白히 말하면서 오늘 會談은 이렇게 이제 結束을 하자는데 다른 意見은 없습니다.

다음 4次會談 날짜라도 우리 정해놓고 헤어져야지요.

南(宋漢虎) :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마디 좀…….

北(백남준) : 우리 意見은 11月 2日날에 4次會談을 했으면 좋겠는데, 貴側의 意見은 어떤지?

南(宋漢虎) : 11月 2日이요?

北(백남준) : 예, 11月 2日.

南(宋漢虎) : 그런데 내가 거기에 言及하기 前에, 이제 白先生이 또 文益煥·林秀卿 問題를 이야기를 하고…….

北(백남준) : 돌아가서 그것 좀 생각을 해보아야지요. 그래도 우리 意見도 좀 尊重해 주어야지. 그 前에 1次·2次會談 처럼 계속 나와서 뭐…….

南(宋漢虎) : 지난번 1次, 2次 때도 부당한 「팀스피리트」訓練을 前提

條件으로 내세워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또다시 또 文益煥·林秀卿 司法處理에 관해서 어찌고 저찌고 이야기 하는데, 分明히 내가 이 자리에서 答辯을 해요, 뭐 이다음 기다릴 必要도 없이 그것은 우리 內部問題이고 그래서 貴側이 거기에 干涉할 性質의 問題가 아닌 것입니다.

아마 司法處理는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 司直當局의 公정한 審判에 依據해서 處罰을 받을 것입니다.

北(백남준) : 또 10時 初盤부터 다시 始作할까요? (웃음)

南(宋漢虎) : 그리고 앞으로는 요다음 부터는, 오늘은 會談外的인 問題를 가지고 자꾸만 時間을 끌고 3時間 以上이나 論議하면서도 다른 實質的인 問題를 討議를 못했는데, 요다음에는 정말 會談外的인 問題는 들고 나오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다하게 되면 우리 國民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北韓側에서는 高位當局者會談을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뭐 아무런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 나가서 무슨 豫備會談이고 뭐 할 必要가 없지 않느냐.

이런 輿論이 아마 강하게 대두되리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백남준) : 또 길게 말씀하시네…….

南(宋漢虎) :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銘心해서 앞으로 그런 問題를 舉論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北(백남준) : 내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會談外的인 問題인가 한번 討論에 불려보십시오.

南(宋漢虎) : 그래 한번 물어봐요. 물어 보세요.

北(최우진) : 계속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 司法處理하면, 司法處理하면

안됩니다.

北(백남준) :우리가 이거 徹底하게 우리의 討議의 基調에 우리가 民族問題, 統一問題를 論한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가 互相 誠意를 가지고 協調하는 精神에서 이 會談에 임하는 그런 方向에서 합시다. 그래야 모든 問題가 풀립니다.

南(宋漢虎) :날짜에 대해서는 말이죠.우리 이렇게 하십시오.11月 15日로 하죠. 뭐, 빨리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만큼 알맹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와서 協議할 수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요.

北(백남준) :그런데 11月 15日이요?

南(宋漢虎) :예, 그게 무슨 曜日이죠?

南(廉弘喆) :예, 水曜日 입니다.

南(宋漢虎) :예, 水曜日.

北(백남준) :에이, 그것 너무 오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다가는 금년도에 本會談을 誕生 못시키겠습니다.

南(宋漢虎) :오늘 우리 實務問題에 관해서 서로가 論議되었으면 이다음 會談쯤에는 다 타결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北(백남준) :그것은 宋先生 때문에 못했어…….

南(宋漢虎)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웃음)

南(金三勳) :이렇게 하고 우리 年內에 總理會談할 수 있죠. 한달 以內에 하기로 우리가 合意했었으니까.

北(최우진) :아니, 會談의 重要性을 강조하면서 會談을 그렇게 늦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南(宋漢虎) :아니 그러니까, 알맹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다음에 實質問

題 討議에 들어가면 내가 볼 때에는 요 다음에 다 타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北(최우진) : 아니 11月 2日에 한다면서 석週인데 왜 두週를 더 늦추겠 습니까?

北(백남준) : 그것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늦는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이것 本會談 또 結束하지 못하고 말아요.

南(宋漢虎) : 이다음에 姿勢만 誠實하게 지니고 오면 돼요. 다 될 수가 있어요.

北(백남준) : 그것 또 아까 林秀卿이가 좋은 일 했는데 그것도 問題視하 고 또 그냥 좋은 일 한것 가지고 지금 緊張시킨 것은 나는 그쪽 같 은데 그 罪도 거기써야 된다고 하던건데, 자꾸 또 그런 말씀하는데 그 러지 말고 그저 11月 7日날 하지요. 7日날…….

南(金保鉉) : 11月 7日이면 火曜日인 것 같은데?

北(백남준) : 예, 火曜日이에요, 火曜日…….

南(宋漢虎) : 11月 9日날 하죠?

北(백남준) : 예?

北(최우진) : 아니 宋先生! 貴側에서는 자꾸 對話를 늦추자고 하는데 무 슨 事情이 있습니까?

南(宋漢虎) : 아니, 그런 것은 없어요.

北(백남준) : 11月 7日 以後는 내가 좀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바에 는 11月 4日날 하지요.

南(廉弘喆) : 이보다 더 重要한 일이 있어요?

南(宋漢虎) : 아니, 조금전에 11月 7日날 하자고 해놓고는 또 4일이에

요? 그러면 9일날 해요, 9일날 …….

北(백남준) : 그럼 7日날 하지요, 7日날 …….

南(宋漢虎) : (北側 「메모」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기 連絡이 오네요, 뭐 저기 連絡이 와요. (一同웃음)

南(金三勳) : 7日이 안좋은데요.

北(김영철) : 빨리 하면 좋겠는데.

北(백남준) : 아니 그런데 무슨 事情이 있습니까?

南(宋漢虎) : 예, 나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래요.

北(백남준) : 전부 내것만 고집하려고 하지 말고 이런거라도 한번 대법하게 讓步를 해보시지 그래요.

南(宋漢虎) : 그럼, 白先生이 한번 讓步해봐요.

北(최우진) : 그럼 좀더 앞당기면 어떻습니까? 11月 1日쯤으로, 그때 뭐 다른 計劃이 있으면 …….

南(宋漢虎) : 아니, 내가 그때도 바빠요. 자, 이제 白先生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北(백남준) : 내가 大局的 도량을 배풀어야지, 그럼 11月 15日로 합시다.

南(宋漢虎) : 그래,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잘됐어요.

北(백남준) : 그게 木曜日입니까? 金曜日?

南(金三勳) : 水曜日입니다.

北(백남준) : 水曜日 …… . 저 또 金三勳先生, 自己가 또 擇日을 잘했다고 …….

南(宋漢虎) : 자, 이제 서로 악수나 하고들 가야지요?

이 다음에는 뭐 實質問題 討議에 들어가지요.

北(백남준) : 좋은 案만 가지고 나오면 뭐 今年度에 本會談 하겠지요.

南(金三勳) : 아, 물론이죠. 年內에 하죠. 다음에…….

北(최우진) : 나 오늘 말 안하고 참았는데 和解하기요.

北(유성철) : 정말 좋은 對答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北(최성익) : 廉先生! 오늘 初面에 여러가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에 잘해보십시오.

南(廉弘喆) : 아,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南(金保鉉) : 자, 수고하셨습니다.

南(朴鍾權) : 수고하셨습니다.

南(金三勳) : 수고하셨습니다.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附 錄〉

代 表 團 記 者 會 見

< 代表團 記者會見 >

*日時：1989.10.12 (金) 13:35 ~ 13:46

*場所：板門店 우리側地域「平和의 집」

*發表 및 答辯：宋漢虎 首席代表

1. 記者會見文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오늘 TV를 여러분들이 直接 보셔서 아시겠지만 3時間 6 - 7分까지 會談을 계속했는데 實質的인 節次問題 討議는 한발자욱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會談 도중 도중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會談外的인 이야기는 그만 두고 總理會談을 위한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北韓側이 이에 呼應하지 않고 다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文益煥氏와 林秀卿 學生의 司法處理에 대해서 是非를 하고 빨리 釋放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一方的인 要求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林秀卿이나 文益煥問題는 이 사람들이 政府의 許可도 받지않고 자기 멋대로 恣意的인 判斷과 恣意的인 行動으로 北韓으로 不法的으로 密入北했다.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우리 現行法이 있고 하나가 이 現行法에 違反됐다. 實定法에 違反되었기 때문에 司法處理하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당연하다. 이렇게 對應을 했습니다.

그리고 北韓側은 基調發言을 통해서 「팀스피리트」 訓練問題를 또 舉論 했어요.

이것 역시 지난 1, 2次 때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會談外的인 問題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不當性도 제가 이야기 하고 더 이상 이 問題를 가지고서 過去 1次, 2次會談을 空轉시켜왔던 行動을 취하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北韓側은 基調發言속에서 最近에 北韓側이 提起한 이른바 「民族統一協商會議」에 대해서 提議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 역시 우리 會談의 性格에 맞지 않는다.

또 그러한 民族統一協商會議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過去의 48年度부터 이른바 「諸政黨·社會團體 連席會議」를 主張했던 그러한 것의 再版이고 그것을 이제 包裝만 바꾸어서 내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것을 들고나와서 또 이야기한다는 것은 역시 온당한 會談態度가 아니라는 趣旨의 말을 했습니다.

事實上 오늘 討議는 보신 바와같이 實質問題 討議는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오늘 會談 끝나면서 내가 北韓側에 대해서 이러한 會談外的인 問題를 들고나와서 會談에 障礙를 造成한다든가 혹은 會談을 어렵게 만드는 行爲는 이 다음 부터는 하지 말아라.

萬若 그런 式으로 또다시 이다음 4次會談에서도 나와서 그런 式으로 그 問題를 들고 나와서 우리한테 是非한다면 그것은 結果的으로 우리 國民들이 北韓側에서는 總理會談을 위한 會談을 할 意思가 없는 것이 아니

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北韓側도 아까 記者會見때 말한 것 같은데 첫 基調發言에서 代表團 隨行員 問題에 관해서는 우리는 40名이 隨行하도록 하자, 北韓側은 1, 2次 때는 20名으로 하자고 했는데 오늘 30名으로 새롭게 隨行員 數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그리고 本會談 開催場所問題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서울과 平壤을 번갈아가면서 하자는데 대해서는 서로가 다 意見의 一致가 있었고 다만 우리는 1次會談을 서울에서 하자 이렇게 主張을 해왔는데 오늘 北韓側이 거기에 대해서 同意하는 그런 內容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무슨 어떤 讓步라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國會會談을 위한 準備接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中斷되어가지고 7次까지 하고 8次會談을 저희가 25日날 하자고 提案을 해놓았는데, 그 問題에 대해서 우리側에서는 제 1次 國會會談 本會談은 平壤에서 하자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相互性에 立脚해서 불때도 總理會談을 위한 第1次會談은 서울에서 開催하는 것이 當然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北韓側도 그런 意味에서 肯定的으로 나온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오늘 會談外的인 問題, 특히 文益煥이라든가 혹은 林秀卿學生 問題 때문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是非하고, 우리의 司法處理 問題에 대해서 內政干涉的인 發言을 하기때문에 하나도 節次問題 討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앞으로 요다음 네번째 會談에서는 北韓이 좀더 誠意를 가지고

會談 本質的인 問題, 우리 豫備會談 代表들 한테 賦與된 使命에 맞게 會談에 應해 오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혹시 무슨 質問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는 範圍內에서 答辯을 해드리고 또 外信에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우리 金三勳 代表께서 對答해 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 質疑·應答

質問: 北韓側이 계속 會談外的인 問題를 들고 나왔는데 말이죠.

지금 1次·2次·3次 세번에 걸쳐서 똑같은 問題를 들고 나왔는데, 아까 北側 團長의 얘기는 앞으로 또 그 問題를 舉論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會談進展 없이 계속 이 會談이 政治宣傳場化 되는 데도 不拘하고 會談에 繼續 應하시겠습니까?

答辯: 北韓 團長이 다음번 會談에서도 또다시 그런 問題를 가지고 舉論하겠다고 한 것은 참 遺憾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深思 熟考를 해가지고 다음번 會談때 北韓側에서 조금 態度를 바꿔가지고 實質的인 節次問題 討議에 呼應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고, 이 다음에 北韓이 이와 같은 希望과 期待에 어긋나게 또 그런 問題를 들고 나오면 우리로서는 또 그 不當性을 다시 한번 指摘을 하고 北韓의 姿勢를 是正하도록 促求하는 그런 道理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여간 忍耐를 가지고, 北韓側하고 이제 對話를 하는 것은 물론 여러

분도 다 지켜봐서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忍耐를 가지고 좀더 우리가 끈기 있게 하나하나 解決하는 이와같은 姿勢가 必要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로서는 誠意를 다해가지고 北韓을 좀더 理解시키고 또 說得을 시키면서 어쨌든간에 우리 總理會談은 肯定的으로는 可能하면 來年에 成事시킬 수 있도록 希望을 합니다.

質問：3次보다는 4次會談이 조금 進展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제 4次 會談에 대한 展望은 어떻게 보십니까?

答辯：글쎄 展望은 아까 北側 團長이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의 期待하고는 조금 어긋나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러나 問題는 北韓側의 態度에 달려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北韓側이 보다 眞摯하고 誠實한 姿勢로 節次問題 討議에 나올 것을 希望을 하고 오늘 여기에서 설사 우리 白團長이 이야기 했지만 돌아가서 오늘 3次會談의 前後를 죽 되새겨 보면서 좀더 態度를 바꾸기를 期待합니다.

質問：次期 4次會談을 11月初보다는 11月 15日을 고집하신 것은 그때 司法處理가 대략 끝나는 時點이라 그런것 아닙니까?

答辯：아니, 그런 政治的인 考慮라든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한달 程度 가지고 하면 또 우리도 充分하게 研究를 하고 아시다시피 여기 會談들이 많지 않습니까?

赤十字會談도 있고, 國會會談도 있고, 體育會談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다 考慮해 가지고, 또 事實上은 아까도 제가 날짜 決定할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날짜가 한 이틀, 열흘 앞당겨지는 것이 問題가 아니라 實際

會談場에 나와가지고 어떤 內容을 가지고 協議・討議할 것인가 하는 그런 姿勢가 問題이지 날짜 問題에 있어 일주일이나 4 - 5日은 별다른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質問 : KBS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赤十字會談이나 高位當局者會談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感情 인데요. 어떻게 보면 1次會談 때와 비슷한 內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서로 雙方이 보며는 繼續 消耗戰的인 會談을 進行하고 있는데 이것을 妥結하기 위한 우리側에서의 어떠한 劃期的인 「카드」를 提示할 意思는 없으신지요.

答辯 : 劃期的인 「카드」라는 것이 없는 것 이지요.

南北間의 會談에서 正常的인 方法으로 해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事實은 節次問題 討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本會談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代表團 構成을 어떻게 할 것인가, 會談場所와 日時는 어떻게 할 것인가, 名稱은 어떻게 하느냐, 議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네가지예요.

이 네가지 問題만 가지고 討議하면 되는 것인데, 그 問題가 아닌 다른 問題가 複雜해지고 解決을 더 遲延시키는 이러한 結果가 지금 나오는 것이지요.

問題는 節次問題 討議에만 들어간다면 본래 우리 代表에게 賦與된 使命에만 充實하면 뭐 하루에 다 解決될 수 있는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質問 : 隨行員 問題와 關聯해서 北韓側이 提議한 30名에 대해서 우리側이 同意하는 것입니까?

答辯 : 아니요. 내가 同意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

事實은 왜 우리가 40名을 하자고 그랬느냐 하면 그동안에 赤十字會
談이라든가 또 우리가 事實上 「故鄉訪問團」때 平壤에 갔었어요.

그때 20名의 人員을 가지고 해보니까 다들 상당히 고생들을 해요.

고생을 하는데 밤잠을 못자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事業을 하
면서 굳이 그렇게 人員을 制限을 해서 고생시킬 必要가 없지 않느냐.

어느 정도 代表團들이라든가 이분들을 充分히 支援해 줄 수 있는 이
런 程度의 數를 대동해가지고 가면 좋으면 좋지 나쁠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더 質問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끝내지요.

感謝합니다.

